

20 신학부 보고

제107회기 신학부 사업 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부 장 한종욱
서 기 임종구

1. 조 직

- 1) 임 원: 부장 한종욱, 서기 임종구, 회계 성경선, 총무 박의서
- 2) 실행위원: 서상원 진수일 이강석 조성협 박명배 이병설 정병갑 고석찬 김종원 김대환 최호숙
임동헌 남길우 유웅상 김세열
- 3) 부 원: 임승열 이충원 박상호 유점열 오호영 김영철 홍용희 김종준 김정열 허정기 문성식
정금열 박은수 노한상 정창수 강재식 노인국 김성경 이규현 현동성 민선기 이용재
허호웅 심수명 김문석 이세광 이병택 박흥범 박상규 유선모 이해상 남윤환 김성곤
문성남 이상복 김종원 김태일 김윤경 최창영 장 실 신헌재 송종필 변윤출 정광일
진용식 허재영 김정오 신안식 서대천 정형덕 배명원 송유하 김은호 박병태 설동주
최종천 김기태 김종희

2. 회 의

1) 전체회의

(1) 제1차 전체회의

☞ 일 시: 2022. 9. 19.(월) 오후

☞ 장 소: 주다산교회당

☞ 결의사항

① 임원조직을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하다.

부장: 한종욱, 서기: 임종구, 회계: 성경선, 총무: 박의서

② 재정청원과 사업은 임원에게 일임기로 하다.

2) 실행위원회

(1) 제1차 실행위원회

☞ 일 시: 2022. 10. 18.(화) 11:00

☞ 장 소: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총회 수입 건과 총회신학정체성선언준비위원회 및 신학부 사업은 임원회에 맡겨 진행하기로 하다.



- ② 총회 현의안과 각 상비부 사업 즉 신학 관련 문제는 신학부에 맡겨 연구토록 할 것과 총회 현의부에서 현의안 분류 시 신학 관련 건은 신학부로 배정하도록 촉구할 것을 결의하다.

(2) 제2차 실행위원회

☞ 일 시: 2023. 7. 11.(화) 16:00

☞ 장 소: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회심준비론 및 능동적 순종, 신학부 수임 연구 보고를 받기로 하고 보고서 작성은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 ② 총회신학정체성선언문은 채택하되 오탈자와 비문 등을 수정하여 총회에 보고하기로 하다.
- ③ 여성 안수는 총회결의에 반하므로 각 상비부와 위원회에서는 총회의 신학 정체성에 의거 활동할 것을 청원하기로 하다.
- ④ 총회에서 신학의 문제는 반드시 신학부로 이첩하여 연구하도록 청원하기로 하다.
- ⑤ 총회 신학부 청원서와 보고서 작성은 임원회에 맡기기로 하다.

3) 임원회

(1) 제1차 임원회

☞ 일 시: 2022. 10. 7.(금) 10:00

☞ 장 소: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회의비 800만 원, 연구비 1,500만 원 배정 보고 받다.
- ② 신학부 추경 1,200만 원, 총회신학정체성선언준비위원회 4,000만 원 추경 청원하기로 하다.
- ③ 제106회기 이대위에서 신학부로 이첩한 능동순종, 회심준비론에 대한 연구는 제107회기에서 받아 연구하되, 본 연구의 주제가 방대하기 때문에 본 회기에서는 두 주제에 대한 연구만 진행하고 이와 관련된 기타 현의는 본 주제에 대한 결론이 나온 후 다음 회기에서 다루기로 하다.
- ④ 신학부 실행위원회를 10. 18.(화) 오전 11:00에 총회회관에서 모이기로 하다.
- ⑤ 대·소요리문답 해설집을 발간하기로 하다.
- ⑥ 역대 총회 신학 관련 결의를 기독교신문과 SNS로 홍보, 보급하기로 하다.

(2) 제2차 임원회

☞ 일 시: 2022. 10. 18.(화) 10:30

☞ 장 소: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연구 수임과 총회신학정체성선언준비위원회 조직은 부장과 서기에게 일임하여 진행하기로 하다.
- ② 총회 신학부 수임 사항은 그대로 받기로 하다.
- ③ 신학부 임원 세미나를 2022. 11. 11.(금)~12.(토)에 대전에서 가지되 전임 신학부 임원을 초청하여 강의를 듣기로 하다.

(3) 제3차 임원회

☞ 일 시: 2022. 12. 8.(목) 16:00

☞ 장 소: 새로남교회당

☞ 결의사항

- ① 총회살림부흥신학세미나 개최 관련 보고를 받고 부장과 서기에게 맡겨 진행하기로 하다.

(4) 제4차 임원회

☞ 일 시: 2023. 1. 6.(금) 14:00

☞ 장 소: 온라인회의

☞ 결의사항

- ① 총회살림부흥신학세미나 준비사항을 보고 받고 원만한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다.
② 세미나 관련 재정 지출은 부장과 회계에 맡겨 진행하기로 하다.

(5) 제5차 임원회

☞ 일 시: 2023. 1. 13.(금) 14:00

☞ 장 소: 해림교회당

☞ 결의사항

- ① 강사비로 기초 강연은 25만 원, 특강 25만 원, 순서자 여비는 지역 여비와 식대로 하기로 하다.

(6) 제6차 임원회

☞ 일 시: 2023. 2. 15.(수) 14:00

☞ 장 소: 덕천제일교회당

☞ 결의사항

- ① 중부·호남 지역 신학 세미나 세부 사항 준비상황을 보고 받다.

(7) 제7차 임원회

☞ 일 시: 2023. 4. 19.(수) 13:00

☞ 장 소: 송정중앙교회당

☞ 결의사항

- ① 신학부 임원 수련회를 5월 31일(수)~6월 2일(금) 하기로 하고 장소와 진행은 부장과 회계에 맡겨 진행하기로 하다.
② 신학부 연구비 추경 천백만 원을 확인하다.
③ 성락교회 지교회(4. 9.) 설교자에 대한 진상 조사 청원의 건은 총회임원회로 보내기로 하다.

(8) 제8차 임원회

☞ 일 시: 2023. 7. 11.(화) 13:00

☞ 장 소: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회심준비론(김효남, 서문강)과 능동적 순종(김길성, 김찬영) 강의하기로 하고 발표자에게 강의비 10만 원과 지역 여비를 지출하기로 하다.
② 연구 수임 교수는 강의비 10만 원과 지역 여비, 원고료를 별도로 하기로 하다.
③ 연구비와 원고료는 1인 40만 원 지급하기로 하다.
④ 신학부 총회신학정체성선언준비위원회는 700만 원을 추경하기로 하다.
⑤ 청원서 및 보고서 작성은 부장, 서기에게 일임하기로 하다.
⑥ 기타 잔무를 부장과 서기에게 일임하기로 하다.



4) 임원세미나

☞ 일 시: 2022. 11. 11.(금) 14:00

☞ 장 소: 대전 롯데시티

☞ 결의사항

- ① 신학부에 수입된 헌의안에 대한 연구 수입을 서기의 보고대로 받기로 하다.
- ② 총회신학정체성선언준비위원회 조직과 사업계획은 보고대로 받기로 하다.
위원장 오정호, 서기 임종구, 총무 신현철, 회계 이풍인, 초안작성위원장 김길성
- ③ 신학부 추경 1,200만 원, 총회신학정체성선언준비위원회 4,000만 원 추경 청원을 올리기로 하다.
- ④ 신학부 주관 총회 신학부 세미나를 1월, 2월에 걸쳐 실시하기로 하다.

3. 사업 보고

1) 총회살롬부흥신학세미나 1차 서울·경기지역

(1) 일시: 2023. 1. 13.(금)

(2) 장소: 헤림교회당

(3) 설교: 총회장 권순웅 목사

(4) 강의 및 강의 제목

- ① 살롬부흥 개혁신학적 의의와 가치(강사 문병호 교수)
- ② 총회 헌법 100주년의 의미와 성찰(강사 임종구 목사)
- ③ 신학부 결정 사항과 목회 현장에서의 적용(강사 이풍인 목사)

(5) 결산

수입		지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비고
총회예산	5,283,000	임원 여비	435,000	임원 여비
		순서자 여비	1,530,000	설교, 순서자, 기조 강연, 특강 1, 특강 2
		인쇄비	2,878,000	강의안(1,000부), 순서지
		행사 진행비	440,000	장소사용료, 방송실, 반주자, 현수막
합계	5,283,000	합계	5,283,000	

2) 총회살롬부흥신학세미나 2차 영남지역

(1) 일시: 2023. 2. 15.(수)

(2) 장소: 덕천제일교회당

(3) 설교: 삼양교회 정연철 목사

(4) 강의 및 강의 제목

- ① 개혁주의 세계관과 살롬, 교회, 살롬의 공동체(강사 라영환 교수)
- ② 총회 헌법 100주년의 의미와 성찰(강사 임종구 목사)
- ③ 총회 신학적 주요 결의와 목회적 적용(강사 신현철 목사)

(5) 결산

수입		지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비고
총회예산	2,828,000	임원 여비	810,000	임원 여비
		순서자 여비	1,095,000	설교, 순서자, 기조 강연, 특강 1, 특강 2
		장소사용료	200,000	교회
		행사 진행비	723,000	방송실, 반주자, 안내 및 행정, 현수막
합계	2,828,000	합계	2,828,000	

3) 총회살롬부흥신학세미나 3차 중부지역

- (1) 일시: 2023. 3. 15.(수)
- (2) 장소: 대전중앙교회당
- (3) 설교: 부총회장 오정호 목사
- (4) 강의 및 강의 제목
 - ① 세상의 평화와 하나님의 평화, 교회사에서의 살롬과 부흥(강사 김요섭 교수)
 - ② 총회 헌법 100주년의 의미와 성찰(강사 임종구 목사)
 - ③ 총회 주요 결의와 목회 현장의 이해(강사 이국진 목사)

(5) 결산

수입		지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비고
총회예산	2,303,000	임원 여비	860,000	임원 여비
		순서자 여비	950,000	설교, 순서자, 기조 강연, 특강 1, 특강 2
		장소사용료	200,000	교회
		행사 진행비	293,000	방송실, 반주자, 현수막
합계	2,303,000	합계	2,303,000	

4) 총회살롬부흥신학세미나 4차 호남지역

- (1) 일시: 2023. 4. 19.(수)
- (2) 장소: 송정중앙교회당
- (3) 설교: 광주중앙교회 한기승 목사
- (4) 강의 및 강의 제목
 - ① 신약성경에 나타난 화평의 복음과 부흥(강사 이풍인 교수)
 - ② 총회 헌법 100주년의 의미와 성찰(강사 임종구 목사)
 - ③ 총회 신학적 주요 결의와 목회적 적용(강사 신현철 목사)



(5) 결산

수입		지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비고
총회예산	2,527,000	임원 여비	780,000	임원 여비
		순서자 여비	1,020,000	설교, 순서자, 기조 강연, 특강 1, 특강 2
		장소사용료	200,000	교회
		행사 진행비	527,000	방송실, 반주자, 현수막
합계	2,527,000	합계	2,527,000	

5) 총회살롬부흥신학세미나 5차 제주지역

- (1) 일시: 2023. 5. 31.(수)~6. 1.(목)
- (2) 장소: 제주동산교회당
- (3) 설교: 신학부장 한종욱 목사
- (4) 강의 및 강의 제목
 - ① 총회 헌법 100주년의 의미와 성찰(강사 임종구 목사)

(5) 결산

수입		지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비고
총회예산	2,791,440	임원 여비	1,160,000	임원 여비
		순서자 여비	330,000	설교, 순서자, 기조 강연
		장소사용료	200,000	교회
		행사 진행비	1,101,440	차량 렌트비 및 유류비, 택배 발송, 의전 및 행정, 현수막
합계	2,791,440	합계	2,791,440	

4. 결산

수입		지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비고
회의비	8,000,000	회의비	9,460,900	신학부 및 총회신학정체성준비위원 연석회의 포함
연구비	15,000,000	연구비	35,909,560	살롬부흥신학세미나(5회) 연구 수입 원고료, 공청회, 자료집
추경	23,000,000	잔액	629,540	추경(회의비: 2,000,000 / 연구비 21,000,000)
합계	46,000,000	합계	46,000,000	

5. 신학부 연구 보고

1) 개신교 대신 기독교로 교단 대내외 공식 사용 현의의 건(연구자: 이풍인)

현의안에는 ‘개신교’라는 표현보다 ‘기독교’로 통일하여 사용하면 좋겠다는 청원자의 의도가 잘 설명되어 있다. 기독교 명칭의 유래와 명칭이 지닌 내용, 그리고 기독교라는 이름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동의 되는 부분도 있었다. 그러나 개신교라는 말에 현의자가 생각하는 편협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어 보인다. 현의자는 “개신교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욕보이고 비하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름인 것이다.”라고 말하며, 오늘날 기독교에 대해 비난조로 사용하는 ‘개독교’라는 말과 유사한 의미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가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사회 통념상 ‘개독교’라는 말은 기독교를 비하하는 말이라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다. 그러나 ‘개신교’라는 말에 대해 비하와 관련해서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특히 현의자가 언급하는 가톨릭교회 성도들이 ‘개신교’를 ‘작은 집’으로 보고, 자기들을 ‘큰 집’으로 본다는 이해는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사적인 견해가 담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가톨릭 신자 혹은 신부 중에 그러한 생각을 지닌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공식적인 견해와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경우에도 가톨릭의 타락과 부패에 대해 말할 때 개인적으로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용어의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 통념과 관계된 것이라 할 수 있기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독교는 현의자가 말씀하신대로 가톨릭과 개신교를 통칭하는 용어이고, 개신교 내에도 다양한 교파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어떤 상황이나 용어의 선택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타 종교와의 구분을 위해서는 ‘기독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가톨릭과의 구분을 위해서는 ‘개신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물론 포괄적인 개념으로 ‘기독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현의자가 청원한 내용인 ‘개신교’라는 용어 사용을 자제하거나 금지하거나 ‘기독교’라는 용어를 모든 공식 문서나 언론에 사용하도록 해달라는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 보인다.

가톨릭과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개신교’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고, 그 외의 경우에 포괄적으로 기독교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될 것 같다. 물론 청원자가 밝힌 대로 혹시 개신교라는 단어에 의도적 편협이 담기지 않는지 잘 살피는 것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공식적인 사용이나 사회 통념상 그런 요소를 아직 발견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기에, 기존의 방식으로 ‘기독교’와 ‘개신교’를 상황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

2) 코로나19로 인한 교회의 피해백서 발간에 대한 현의의 건(연구자: 박의서)

(1) 현의 내용

정부 당국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 대면 예배를 중단시킴으로써 한국교회가 입은 피해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백서를 발간해 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 시 예배 매뉴얼을 제정(대면 예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해 주십시오.



(2) 신학부의 입장

우선, 백서를 발간해달라는 요구는 신학부가 감당하기는 너무 큰 문제이다. 대면 예배 중단으로 인한 전국교회의 피해를 철저히 조사하려면 많은 인력과 재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총회 차원에서 대면 예배를 지킬 수 있는 매뉴얼을 제정해 달라는 것도 신학부가 감당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백서가 총회 이름으로 발간되려면 임시로라도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 내용을 연구한 후라야 가능할 일이다.

그리고 지난 정부의 방역 조치와 교회의 피해 문제나, 또다시 대면 예배 금지 조치가 취해진다면 어떻게 대처할지도 신학부가 다룰 부분이 아니고 대 사회적인 문제를 담당하는 상비부가 맡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신학부는 본 총회의 신학적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 연구하고 발표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본 현의는 신학부에서 다룰 수 없는 문제로 여겨진다.

3-1)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죄의 의미(연구자: 김길성)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은 그리스도의 순종교리의 논의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종교리의 논의는, 넓게는, 그리스도의 품위와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하는 대주제들을 포함하는 기독교론에 속하는 주요 주제 중 하나이다. 그리스도의 순종교리는,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삼직(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에 속하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사역과 연계되어 그리스도의 속죄 교리에서 논의되는 주요 교리에 속한다.

그러나 죄인을 위한 구속 사역은 그리스도의 품위와 사역을 논하는 기독교론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순종을 논하는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논의는 먼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정점과 최고의 순종인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는 그 자체로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순종이며, 범죄 한 자기 백성이 받아야 마땅한 형벌과 저주와 이로 인한 진노와 죄책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짚어지신 대속의 죽음이다. 그리스도의 속죄에서 순종과 만족은 동전의 양면이다.

또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속의 적용 사역에 있어서, 믿는 자의 칭의와 성화와 양자 됨(하나님의 자녀 됨)을 포함하여, 믿는 자의 구원과 관련된 복음의 모든 유익이 성경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 특히,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관한 논의는 기독교론에만 한정되지 않고, 삼위 하나님의 품위와 사역에 직, 간접적으로 연결된다.

신자의 칭의는 신자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주어지는 구속적 유익들에 속한다. 그러나 이 경우 에라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 강조점이 영적 연합이라고 하는 점이며, 칭의의 강조점은 법적 연합이라고 하는 점이 구별된다. 신구약 성경에 사용되는 용어의 용례도,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롭다고 칭함’ 또는 ‘사람을 의롭다고 선고함’을 가리킨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신자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는 법정적이며, 사법적이며, 그리고 신자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는 단순히 선언적 행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언적이면서, 동시에 신자 개인에게 그렇게 선고된 새로운 관계를 이루시는 제정적(또는 구성적, constitutive) 행위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그리스도의 순종,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속죄, 구원의 계획, 그리스도와의 연합, 칭의, 수양(양자 됨), 결정적 성화

3-2)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은 역사적 개혁주의 교리이고 성경적인 가르침인가?(연구자: 김찬영)

성경적 칭의 교리는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근본 교리이다. 비록 죄인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기뻐할 수 있도록 죄와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은 칭의보다 범위가 넓지만, 칭의는 구원에 필수적이다. 죄인이 용서받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죄인의 어떤 자질이나 행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충분한 만족, 즉 그리스도의 의(義)가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죄인이 의롭다 함을 받는 유일한 근거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충분한 만족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義)이다.

그런데 죄인에게 전가되는 그리스도의 순종이 어떻게 정의되어야 하는지, 그 정확한 범위가 어떠한지에 대한 물음이 역사적으로 계속 제기되어 왔다. 특히 본 교단 안에서도, 칭의의 토대로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 전체의 한 측면을 묘사하기 위한 신학 용어인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 적잖은 논쟁이 되고 있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교리의 핵심은 무엇인가?

능동적 순종은 그리스도께서 전생애 동안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요약되는) 율법의 적극적인 모든 요구를 만족시킨 삶을 가리킨다. 흔히 그리스도의 순종의 절정인 십자가의 죽음을 수동적 순종에 돌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죽음은 능동적 순종의 최고 표현이기도 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한 사랑의 절정이면서 죄인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 이웃 사랑의 정점으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극치이다. 수동적 순종이 대리적 수난으로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포함하는 전 생애와 관련 있는 것처럼, 능동적 순종도 그리스도의 대리적인 율법 수행으로서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의 전부를 포함한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교리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포함하는 그리스도의 순종 전체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와 영생을 획득하는 율법의 성취라고 가르친다. 그렇다면 이 교리는 본 교단이 성경을 밝히 해석한 역사적 문서로 인정하는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나 개혁교회의 좋은 스승인 칼빈의 가르침과 일치하는가?

비록 칼빈이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이후 칼빈주의자들만큼 분명하게 구별하지 않고, 능동적 순종교리가 이후만큼 충분히 발전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완전한 율법 준수, 영생, 그리고 의의 전가에 대한 칼빈의 이해를 생각할 때, 신자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전체 순종에 기초해서 의롭다 간주되고 영생의 자격을 얻는다는 교리는 칼빈의 가르침과 일치한다.

더 나아가서 웨스트민스터 회의 총대들 다수도 능동적 순종교리를 긍정했다. 비록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교리에 대한 반대가 없지 않았지만, 능동적 순종교리를 신앙고백 문서화하는데 투표로 결정했었다는 것도 역사적 사실이다. 비록 능동적 순종교리를 명시적으로 긍정하는 “전체(whole)”라는 용어가 결국 빠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대요리문답 70)는 칭의의 근거를 그리스도의 고난이나 죽음에 제한하지 않고, “완전한(perfect) 순종”에 둔다.¹⁾

1) 『헌법』, 81.



그리고 칭의의 근거로서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을 함께 긍정하는 “전체”라는 말이 빠진 것은 아마도 수동적 순종만을 칭의의 근거로 주장하는 경건한 소수와 형제들을 신앙고백서로까지 배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그래서 보다 일반적이고 덜 명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순종이 칭의의 근거라는 내용적 진리가 문서화 된 것 같다. 양편의 논쟁이 아주 격렬했지만, 다수파나 총회의 결정과 다른 주장을 펼친 총대들은 정죄되지 않았다.

비록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는 역사적 개혁신학의 신뢰할만한 정의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우리의 신앙고백 자체가 교리적 논쟁의 궁극적 재판관은, 칼빈 같은 교회의 탁월한 교사이거나, 본 교단의 신앙고백 전통이거나, 교회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인 성경뿐임을 고백한다. 그렇다면 성경은 능동적 순종교리를 명시적으로 또는 선하고 필연적인 귀결로서 가르치는가?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롬 5:19). 아담의 불순종은 보편적인 죄와 죽음을 가져왔고, 이 절망적인 문제를 해결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의 순종이다. 그렇다면 의(義)와 영생을 가져오는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롬 5:18)와 “순종”(롬 5:19)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종의 행위에 한정되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포함하는 통합된 전체 순종을 가리키는가? 바울은 죽음과 부활을 칭의의 근거로 말씀하고, 부활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증명한다. 완전한 순종은 나머지 모든 순종과 분리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단일한 행위의 완전함을 가리키기보다는 전체 순종의 완전함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십자가는 부활과 따로 홀로 우리를 의롭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전 생애의 완전한 순종과 따로 있지 않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교리는 죄인의 구원과 칭의를 위해서 필수적인 능동적인 순종을 포함하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 전체에 대한 성경적 진리를 보존한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교리는 칼빈의 주장이나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개혁주의의 전통적 가르침이고, 그 본래의 의미대로 오해 없이 바르게 이해된다면, 성경의 필연적이고 선한 추론이나 성경의 명백한 진술로 뒷받침되는 성경적 교리로 생각된다.

3-3)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의 일환으로서의 능동적 순종(연구자: 정승원)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의 순종을 두 가지 측면, 즉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으로 이해했다. 한편 알미니안주의와 세대주의에서는 두 가지 측면이 아니라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순종으로 이해하고 능동적 순종을 반대해 왔다. 이들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언약 사상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수동적 순종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자들이 당해야 할 율법의 저주를 그리스도가 대신 받으신 그리스도의 사역적 측면을 의미하고 능동적 순종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나서서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신 사역의 측면을 의미한다. 여기서 ‘능동적’(activa)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특별한 행동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통한 통전적이고 온전한 순종에 초점이 맞춰 있다. 여기 구속 역사(historia salutis)에 따른 예수의 전체 삶에서 나타난 예수의 ‘행위’는 인간들이 의를 이루려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예수의 ‘행위’는 죄인인 인간이 자신을 의롭게 하려는 행위와는 달리 율법을 완전케 하는 행위이며 성부의 뜻에 순종하는 행위이다.

“계명을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계명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등 예수의 가르침은 절대 진리이며 하나님의 뜻과 속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가르침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바울의 가르침과 배치되지 않는다. 예수의 가르침은 우리의 율법의 행위를 통한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과 속성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폐기 된 것이 아니다. 한편 율법을 온전케 하려고 오신 예수는 율법을 모두 지키실 수 있고 죄 없으신 그분은 율법의 의를 성취하실 수 있다. 물론 그의 십자가의 속량만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 죄 가운데 머물고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 십자가의 속량을 이루신 분은 다름 아닌 성부를 향해 온전한 순종을 이루신 분이시다.

그리스도의 공생애 마지막 시기에 일어난 십자가의 순종은, 고난과 형벌을 받으신 수동적 순종에 속하는 것이고, 십자가 이전의 모든 생애는, 율법을 준행하신 능동적 순종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즉 전체 순종을 생애의 특정 시기에 따라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순종으로 분할시키는 오류이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구속 역사(historia salutis)에 나타난 그분만의 특별한 사역이다. 그러므로 개혁신학이 그리스도의 순종을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으로 구분하는 것은, 단지 그리스도의 순종이 가진 두 측면을 가리키는 것뿐이지 두 종류의 순종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는 수동적 순종의 의미가,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에는 능동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죽산 박형룡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나면서 한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의 예정과 그 자신의 자유 의지에 의하여 율법에 복종”하신 것이라고 강조한다.²⁾

즉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유대인의 율법 행위와 같은 차원에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존 머레이(John Murray)는 “우리는 이 땅의 우리 주님의 삶의 어떤 단계들이나 행동들을 능동적 순종으로 배분할 수 없고 어떤 다른 단계들이나 행동들을 수동적 순종으로 배분할 수 없다. <중략> 우리는 능동적 순종을 그의 삶의 순종에 적용하고 수동적 순종을 그의 마지막 고난과 죽음의 순종으로 적용하는 실수를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경고한다.³⁾

4) 가톨릭 세례자 입교 교육 및 문답 후 입교 교인으로 공포 실시의 건(연구자: 이풍인)

이 현의안은 가톨릭 영세를 인정하지 않고 다시 세례를 베푸는 것에 대한 재고를 요청한 내용이다. 가톨릭교회 영세에 대한 역사적 신학적 성경적 그리고 목회적 접근을 통해 이 현의안에 대한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약성경은 하나의 세례를 가르친다. 이 원리는 어떤 주장보다 우위에 있다. 이것은 어거스틴, 칼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비롯한 다수의 신앙고백서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로 작용했다. 이것에 근거해서 볼 때 재세례는 비성경적이다.

둘째, 어거스틴이 도나투스주의자들과의 논쟁에서 보여주었던 원리는 이후 종교개혁 전통에 서

2) 박형룡, 『기독론』, 개정판, 김길성 개정감수 (서울: 개혁주의 출판사, 2000), 170.

3) John Murray, *Redemption Accomplished and Applied* (London: The Banner of Truth Trust, 1961), 20.



있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이 원리에 입각하여 영세에 대해 살펴보면, 가톨릭교회는 참 교회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가톨릭교회에서 행해진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행해진 세례는 타당하다. 그러나 유효하지는 않다. 그 영세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영세받은 자가 개신교회의 일원이 될 때 가능하다.

셋째, 우리 교단은 꽤 오랫동안 어거스틴, 칼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말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2014년에 총회에서 신학적 검토 없이 영세 불인정 결의를 했지만, 신학적인 검토를 거치면 전통적으로 해온 방식이 정당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가톨릭교회는 우리와는 직제와 신학에서 다른 점이 많다. 더 분명하게 말하면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교로 지정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목회 현장을 고려해도 이교 지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가톨릭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교단 지교회에 등록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이단에서 왔다.”라고 한다면 어떻겠는가? 오히려 마음 문이 닫히고 떠나지 않겠는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잘못된 가르침에 있던 자들을 성경적 개혁주의 신앙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의 역할 중 하나일 것이다.

다섯째, 우리 헌법은 가톨릭교회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정치 총론에서 “주후 1517년 신구 2대 분파로 나누어진 기독교는 다시 수다한 교파를 이룩하여...”(『헌법』 개정판, 147)라고 규정하고 있고, 정치 제도로 교황 정치, 감독 정치, 자유 정치, 조합 정치 그리고 장로교 정치로 나누고 있다.

위 근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가톨릭교회 영세받은 자가 우리 교단 지교회에 등록할 때는 그 혹은 그녀가 받은 영세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개혁주의 신학에 근거한 신앙고백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입교케 해야 한다.

5) 시민단체의 반기독교 사역에 대한 조사 연구(연구자: 신현철)

교회는 개혁되어야 한다. 그러나 누구든지 교회 개혁의 명제만 내걸면 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그 방식이 개혁신학에 부합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럴듯한 명제를 내걸어도 그것은 교회를 세움이 아닌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교회 개혁을 추구한다는 시민단체들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 (1) 교회개혁실천연대(공동대표: 남오성, 박종운, 윤선주, 최갑주)는 한국교회가 자생력을 잃었고, 물량주의적, 기복적, 이원론적 신앙에 깊이 빠져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 단체는 목사의 정년 연장 반대 운동, 교회 세습 반대 운동, 목회자의 성범죄 고발 및 성평등운동, 교단운영의 비리고발 및 목회자의 납세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여기에는 긍정적인 요소가 없지는 않으나 그 사상적 기초와 활동 방식 및 교회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개혁신학과는 거리가 있다고 하겠다.
- (2) 브릿지임팩트(홍민기, 정평진)는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영적 부흥을 꿈꾸는 단체로 주요 활

등은 하나는 “빔캠프”이고 다른 하나는 “탱크청소년사역자학교”이다. 빔캠프란 놀이와 집회라는 두 가지 엔진을 가지고 학생들의 삶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기는 역동적인 캠프이다. 탱크청소년사역자학교는 청소년 사역자들에게 실제적이고 전문적인 사역 훈련을 제공한다. 그 외에도 브리지임팩트는 성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목회자의 성범죄에 대해 대응하는 일을 한다. 이 단체는 그 사역의 내용과 빈도에 있어서 반기독교적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렵지만, 신학적으로는 진보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은 물론 기성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 (3) 교회개혁평신도연합(대표: 정상규)은 목회자의 영성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지역별로 어떤 교회가 건강한 신앙공동체인지 정보를 수집하고 선별하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저항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평신도 단체이다. 이 단체는 기존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 평가를 내리면서 목회자를 경계할 것과 교회에 헌금하지 말 것을 중단하고 기운실, 교회개혁실천연대, 교회개혁평신도연합, 사단법인 평화나무, 뉴스앤조이, 올림, 가스펠 투데이 등에 헌금할 것을 추천한다. 교회개혁평신도연합은 주로 대형교회의 세습에 대하여 반대하며 시위하고, 목회자의 윤리에 대하여 강조하는 단체이다. 교회의 재정비리등을 찾아 고발하는 일 등을 한다. 이는 교회 개혁을 추구하는 방식에 있어서 개혁신학과 거리가 멀고, 오히려 반교회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 (4) 성교육상담센터 숨(대표: 정혜영 목사)은 아동 청소년들이 교회 내에서 성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바른 성교육 성교육문화가 정착시키기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라고 한다. 교회 내에서 바른 성교육을 위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기독교적 성에 대한 강좌를 진행하기도 한다. 한편 교회에서 발생한 성관련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법적 소송에 협력하거나 해당 교회의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한다. 그러나 대표인 정혜민 목사가 진행하는 유튜브 강좌나 대담에서 드러나는 성에 대한 인식은 개혁신학적 입장과는 많은 부분 차이가 난다. 대표적인 것은 혼전순결에 대한 강조를 강요로 인식하는 측면이 있고, 교회와 목회자를 잠재적 가해자로 여기는 듯하다.
- (5) 하나세정치신학연구소(소장: 박성철 목사)는 한국교회의 왜곡된 정치의식을 바로잡고, 정치적 담론, 신학적인 사상을 통해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공적 책임과 시대적 소명을 고민하기 위한 단체라고 할 수 있다. 이 단체는 유튜브와 페이스북이 주된 활동 무대로 하여 종교중독의 문제, 교회의 성문제, 기독교파시즘, 해로운 신앙 등등에 관한 것으로 강좌를 진행한다. 한국교회는 자정능력을 상실하고 있으며, 성범죄자를 비호하고 있는 집단이라고 여긴 것이다. 언론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 성차별 금지를 주장하며 교회의 여성안수를 지지하는 활동을 전개하며, 보수적 기독교단체들의 활동에 대하여 강력하게 규탄하며 반론을 펼친다. 이는 진보적 신학 혹은 정치사상에 맞닿아 있으며, 개혁신학과는 거리가 있고, 전통교회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고 하겠다.
- (6) 사단법인 평화나무(김용민, 벙커1교회)는 신자의 맹목적 신뢰를 바탕으로 거침없이 차별과 혐오가 유발되고, 종교권력을 공고히 하는 일부 개신교회를 감시하고 견제함으로써 한국 개신교회를 공정과 상식, 정의의 토대 위에 세우겠다고 선언한다. 그러나 진보적 정치이념을 통해 교회를 개조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보수적 입장이나, 보수적인 교회에 대해서 현저하게 적대적



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정치적 진보 이념으로 교회를 세속화시키려는 것으로 보이며 개혁신학과는 궤를 달리하는 것이다.

- (7) 뉴스앤조이는 금권과 교권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개신교 언론을 표방하고 있으나, 기사의 논조는 진보적(좌파적)이다. 특히 대형교회 목사들의 비리나 성추문, 막말, 세습이나 불투명한 재정 운용, 각종 부조리 탐사, 보도로 명성이 높으며, 진보계열 개신교인들에게 더 큰 지지를 받고 있다. 진보적 교회의 시각에서 페미니즘이나 성소수자들도 다루고 있으며 옹호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뉴스앤조이에서 나타나는 성소수자, 친노동자, 페미니즘, 민중신학, 퀴어신학, 반기독교, 진보성향의 인물 및 단체에 대한 호의적 태도 등을 정치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지나친 진보적 경향을 보이며, 개혁신학이나 보수적 교회에 대해서는 공격적이어서 교회 파괴적인 측면을 부정할 수 없다.

이상에 언급된 시민단체들은 주로 교회와 목회자를 표적으로 삼고, 정치적으로는 진보적 성향을 보이며, 개혁신학이나 그것을 근간으로 한 보수적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적대적인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우리 교단의 신학적 입장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므로 이들 단체의 활동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6) 극단적 선택에 의한 죽음에 대한 목회적 돌봄으로서 장례 예식(연구자: 주종훈)

기독교 신앙에서 죽음과 관련한 목회적 돌봄의 과제 수행은 의례를 요구한다. 이 목회적 돌봄은 죽어 가는 자를 향한 의례, 죽은 자와 관련한 의례, 그리고 죽음을 슬퍼하는 자들을 위한 의례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죽은 자와 관련한 의례와 죽음을 슬퍼하는 자들을 위한 의례는 연결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노화 또는 질병에 의한 죽음과는 달리 극단적 선택에 의한 죽음과 관련한 예식은 목회적으로 상당히 곤혹스럽다.

극단적 선택에 의한 죽음과 관련한 장례 예식은 6계명에 대한 해석과 적용의 난제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직면한 자들에 대한 돌봄과 슬픔의 표현을 위한 예식에 집중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웨스트민스터 공예배 지침’(Westminster Directory for Public Worship)은 죽은 자의 예식과 관련해서, “시신을 가정(죽은 곳)에서 무덤으로 엄숙하게 옮길 때 어떠한 의례 또는 예식도 없이(without any ceremony)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on “Concerning Burial of The Dead.”)고 언급한다.

극단적 선택에 의한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가족과 동료들을 위한 목회적 돌봄으로서 예식은 교단의 지침인 ‘표준예식서’에 준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노화 또는 질병에 의한 죽음을 직면하는 자들을 위한 예식과는 구분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장례문화원 또는 장례예식사의 안내보다는 목회적 돌봄을 더욱 강조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극단적 선택에 의한 죽음을 직면한 성도들을 위한 장례 예식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다.

입관 예식	발인 예식	하관식
예식선언/ 집례자 기원/ 집례자 신앙고백/ 다 같이 찬송/ 다 같이	예식선언/ 집례자 기원/ 집례자 신앙고백/ 다 같이 찬송/ 다 같이	예식선언/ 집례자 기원/ 집례자 신앙고백/ 다 같이 찬송/ 다 같이

입관 예식	발인 예식	하관식
기도/ 집례자 혹은 말은 이 성경 봉독/ 집례자 설교/ 집례자 기도/ 설교자 찬송/ 다 같이(생략 가능) 축도/ 목사	기도/ 집례자 혹은 말은 이 성경 봉독/ 집례자 설교/ 집례자 기도/ 집례자 찬송/ 다 같이 축도/ 목사	기도/ 집례자 성경 봉독/ 집례자 설교/ 집례자 기도/ 집례자 찬송/ 다 같이 축도/ 목사(주기도의 경우 다 같이)

극단적 선택에 의한 죽음이라도 장례 예식의 기본 구성은 변화가 없다. 하지만 죽음의 이유와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한 유가족들의 슬픔과 상실은 여느 장례와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장례 예식의 기본 구성 곧 입관 예식, 발인 예식, 하관 예식의 구성을 따라 진행하되, 기원, 기도, 설교 등의 핵심 구성 내용을 좀 더 의도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극단적 죽음의 경우, 갑작스럽게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장례 예식과 더불어, 이후 예기치 못한 상실을 경험한 가족들을 별도로 찾아가 예배하고 함께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 목회적 돌봄을 제공하면 도움이 된다. 장례 예식 후 유가족들을 위한 목회적 돌봄으로서의 예식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함께 읽고, 기도하는 방식에는 큰 변화가 없다. 하지만, 함께 읽는 성경과 기도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7) 이혼 목사의 노회 임원과 시찰장 입후보에 대한 헌의 청원의 건(연구자: 이풍인)

우리 교단은 목사의 이혼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지닌다. 부부 사이 음행의 연고 외에는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 입장이다. 오늘날은 약간 외연을 확대시켜 가정 내 폭력이나 도무지 부부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형편에 처했을 때 개별적인 사안으로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혼의 경우에 누구에게 과실이 있었는지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이 헌의안의 경우 이혼에 대한 신학적인 입장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혼한 목사가 노회 임원과 시찰장에 입후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 헌의안은 신학부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정치부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정치부로 이첩시켜 다루는 것이 나을 것 같다.

8-1) 청교도 준비교리(연구자: 김효남)

- (1) 청교도 회심 준비교리는 전통적인 개혁신학의 하나님의 섭리론, 곧 섭리의 3요소인 보존, 협력, 통치 가운데 하나님 협력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만사의 제1원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제2원인들의 본성을 유지하시면서 그것을 사용하여 만물을 통치하신다.
- (2) 16세기 후반 이후 잉글랜드의 많은 교인이 중세와 국교회의 잘못된 신학과 관습에 따라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를 타파하기 위하여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도 그 주권 안에서 허락되는바 인간의 책임과 역할을 독려하고자 참된 회심과 그 안에서 주어진 인간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책임은 순수한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진 것이다.
- (3) 준비교리의 핵심은 회심하게 하는 믿음을 가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택자의 심령을 준비시킨다



는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준비시킨다거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스스로 준비한다는 말이 아니다. 준비라고 말하는 이유는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기 전은 아직 회심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4) 청교도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퍼킨스는 죄인의 회심을 크게 열 단계로 구분하고, 그중 네 단계를 참된 은혜가 임하기 전의 “준비 단계”라고 생각했다. 이 네 단계는 다음과 같다. 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음, ②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율법과 금하시는 율법을 인식함, ③ 죄에 대한 확신과 찢림, ④ 구원에 대한 절망. 이는 곧,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도록 하기 전에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는 말이다. 이것이 준비과정의 핵심이다.

(5) 만물을 작정하신 하나님은 그 작정이 시행될 때 사용되는 수단과 방법도 함께 작정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한 죄인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실 때도 율법과 복음이라는 수단과 이를 선포하는 설교자라는 수단을 작정하셨다. 곧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며,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자신이 아닌 밖에서 오는 도움을 갈망하게 하신 후,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도록 하신다. 이때 죄를 깨닫게 하는 과정을 하나님의 준비과정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의 역사다. 왜냐하면 율법을 듣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는 않으며,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에게만 일어난다.

(6) 준비교리의 성경적 근거

①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삼천 명의 사람들(행 2:14-41)

- 율법: 너희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 이를 들은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로 “마음에 찢렸다” 곧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다.
- 복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② 에디오피아 내시의 회심(행 8:26-36)

- 율법: 이사야 53장을 읽으며 죄의 짐을 지고 가는 고난의 중에 대한 빌립의 설명
- 복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③ 초등교사인 율법과 믿음의 관계(갈 3:21-25)

여기서 율법은 본질적으로 구속사적 의미보다는 개인의 구원 서정에 더 깊이 관여되어 있다. 만약 율법이 구약을 의미하고 믿음이 신약을 의미한다면, 구약에는 믿음이 없었다는 의미가 되고,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가 된다. 하지만 개혁파 신학은 신구약의 성도들이 모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율법과 믿음의 관계는 한 개인의 구원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칼빈도 이 부분에서 이와 같이 해석한다.

(7) 준비교리의 교회사적 증거

① 초대교회: 어거스틴(구원의 4중 은혜중 첫 번째 은혜)

- gratia praeveniens or praeparans(선행하는 또는 준비시키는 은혜): 죄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과 구원을 갈망하는 단계의 은혜.

② 종교개혁가: 존 칼빈

- 칼빈은 회심을 위한 “준비”라는 말을 인정했다. 대표적으로 눅 19:1-10 주석에서 믿음을 가지기 위한 “준비”로서의 “갈망”을 말했으며, 갈 3:24 주석에서 초등교사인 율법의 역할이 죄인들에게 자신의 죄인 됨을 보여주는 거울의 기능을 하여 그리스도를 찾기 전까지는 안식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다고 주장한다.

③ 17세기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언약도)와 잉글랜드 장로파 청교도

- 사무엘 러더포드는 자신의 요리문답서에서 성령께서 율법을 가지고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하여 회개로 이끄시고, 복음을 기다리도록 하신다고 말한다.
- 잉글랜드 장로파 청교도들의 신앙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 15장에서도 회개 혹은 회심을 “복음의 은혜”라고 전제한 후, 복음 사역자들이 율법을 설교하여 자신의 죄악 된 상태를 깨닫게 하고, 복음을 선포하여 은혜를 깨닫게 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율법의 선포를 통한 죄의 깨달음이 청교도들이 말하는 준비다.

④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빌헬무스 아 브라켈(17세기 개혁파 정통주의자)과 바빙크(19, 20세기 개혁파 신학자)도 역시 회심 이전에 율법을 통해서 죄인 됨을 깨닫게 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한다.

- (8) 결론: 그러므로 이 회심 준비교리는 청교도들만의 새로운 교리가 아니다. 이는 초대교회의 어거스틴 이후 칼빈을 거쳐 17세기 장로교 신학자들과 오늘에 이르기까지 개혁교회 안에서 인정받았던 교리이다. 다만 청교도들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들은 이 교리를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청교도들의 회심 준비교리는 인간이 스스로 준비한다는 교리가 아니며, 오히려 회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준비시킨다는 교리이므로, sola gratia(오직 은혜)라는 개혁교회의 대전제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8-2) 회심준비론(연구자: 서문강)

발제자는 ‘청교도들의 회심준비론’의 핵심을 몇 가지 요점으로 나누어 강조하였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작성위원(전체 151명) 중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청교도들이 칼빈주의적 입장에서 택한 백성의 회심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회심준비론(preparation doctrine for the conversion to God)’을 형성하였다.

- (1) ‘회심준비론’에서 ‘준비’는 성령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믿음을 위해 내면적으로 예비하는 은혜를 의미한다.
- (2) 그런 성령의 역사를 만난 이들은 성령의 작용으로 죄에 대한 각성,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 구원에 대한 염려와 열망을 가진다. 이 은혜의 수혜자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절대 필요성을 아는 데까지 나아간다.
- (3) 회심에 이르는 세부적인 과정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성령은 주로 교회의 말씀 사역과 기도와 성례들 은혜의 방편을 통해 이러한 일을 하신다.
- (4) 그러므로 ‘회심준비론’은 ‘성경의 율법과 복음’에 대한 사역자들의 충성과 회중의 집중을 독려한다.



- (5) 회심준비론은 사람의 노력에 의해 회심에 이를 수 있는 도덕주의(율법주의)나 은혜를 빙자한 방종주의를 모두 철저하게 배격한다.
- (6) 회심준비론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전제한 교리이다. 회심준비론은 웨슬리의 ‘선행 은총론’과 구별된다. ‘선행 은총론’은 그리스도께서 인류 전체를 구속하였다는 비성경적인 ‘보편 구속론’을 전제하고 있다. 그것은 개인의 ‘회심의 여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 자신의 의지의 선택사양(選擇辭讓)에 달리게 한다. 그러나 ‘청교도의 회심준비론’은 처음부터 끝까지 택한 백성을 구원 신앙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주권적 은혜의 방식에 초점을 맞춘다.
- (7) 청교도 설교자들은 이 교리를 발견하고 사도의 본을 중시하여 회중들에게 예배와 말씀에 충실하라고 독려했다. 세례요한이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광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백성들로 하여금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다그친 것과 같다(막 1:2-4).
- (8) 이 ‘회심준비론’을 오해하거나 오용(誤用)하지 않도록 극히 경계하라. 이 교리가 마치 ‘하나님의 회심하게 하시는 은혜를 이끌어 들이는 도식이나 프로그램’을 회중에게 부과할 필요를 말한다는 식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회심은 사람의 준비를 발판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 그래서 심지어 정당한 은혜의 방편에 참여한다 해도 회심의 열매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 가롯 유다는 3년여 동안 예수님과 직접 교제하는 특권을 누리면서도 믿음에 이르지 못하였다. 회심은 그 어떤 방도로도 인간이 창출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회심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물이다. 그 어떤 정당한 교리도 그 본래의 용도와 범주를 벗어나 쓰면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회심준비론’을 빙자하여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회심의 도식’을 만들어 ‘기계적 회심론’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결론: ‘회심준비론’은 ‘성자의 구속의 효력을 가지고 택한 백성을 인도하시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성령의 예비적인 은혜 교리’다. 이 교리는 정상적인 교회생활을 통하여 성령의 은혜의 방식을 존중하는 믿음을 행사하도록 사역자 회중 모두를 독려한다.

신학부 수임 안건 최종 보고

1. 제107회 총회 수임 사항

1) 용어 사용 관련 - ‘개신교’를 ‘기독교’로 대내외적으로 공식사용 현의의 건

- ▶ 현재 개신교에 대하여 비하하는 표현이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공식적으로는 기존의 방식으로 로마 가톨릭과 구별이 필요할 때는 ‘개신교’로, 포괄적으로 사용할 때는 ‘기독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2) 코로나 19대응 관련의 건

- ▶ 코로나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의 예배 매뉴얼은 ‘표준예식서 개정위원회’에서 이미 다루었으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입은 피해들을 조사하여 백서를 발간하는 것은 신학부가 아닌 사회부로 이첩하여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교리 관련의 건 및 이대위 능동순종 이첩의 건

- ▶ 그리스도의 순종교리를 말할 때, 유일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범죄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적 죽음이며, 그리스도의 전 생애에 걸친 고난과 율법 아래 오심과 순종의 절정이요, 성부 하나님의 명령과 위탁에 대한 최고의 순종이다. 그러나 순종교리를 전개할 때 그리스도의 순종을 십자가의 죽음에만 국한 시켜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 전 생애에 걸친 전체 순종에서 다루어야 한다. 흔히 십자가의 순종을 수동적 순종으로, 또 십자가 이전의 율법을 준행하신 생애를 능동적 순종으로 구분하는 것은 그의 전체 순종을 생애의 특정 시기에 따라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순종으로 과도하게 분할시키는 것으로 바르지 않다. 그러므로 개혁신학이 그리스도의 순종을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이라는 두 방면의 순종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단지 그리스도의 순종이 가진 두 방면을 가리키는 것뿐이지, 두 종류의 순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의 절정인 십자가의 죽음은 수동적 순종이면서 또한 능동적 순종의 최고 표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순종교리에서 능동적 순종은 그 본래의 의미대로 오해 없이 바르게 사용된다면 명백한 개혁주의 전통의 교리이다.

목회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순종교리를 교훈할 때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그리스도의 순종을 설명할 때 그리스도의 전 생애에 걸친 완전한 전체 순종을 말해야 한다.
- (2)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생애 전체 순종의 절정이며 십자가의 속량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다.



4) 로마 가톨릭 영세 관련의 건

- ▶ 이 헌의안은 로마 가톨릭 영세를 인정하지 않고 다시 세례를 베푸는 것에 대한 재고를 요청한 내용이다. 이 헌의에 대한 본 회기의 연구를 살펴보면

첫째, 신약성경은 하나의 세례를 가르친다. 이 원리는 어떤 주장보다 우위에 있다. 이것에 근거해서 볼 때 재세례는 비성경적이다.

둘째, 어거스틴이 도나투스주의자들과의 논쟁에서 보여주었던 원리는 이후 종교개혁 전통에서 있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이 원리에 입각하여 영세에 대해 살펴보면, 로마 가톨릭교회는 참 교회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행해진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행해진 세례는 타당하다. 그러나 유효하지는 않다. 그 영세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영세를 받은 자가 개신교회의 일원이 될 때 가능하다.

셋째, 우리 교단은 오랫동안 어거스틴, 칼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말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제99회 총회(2014년)에서 신학부 연구 없이 현장 토론만으로 영세 불인정 결의를 했으므로 이 헌의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본 총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우리 헌법은 로마 가톨릭교회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정치 총론에서 “주후 1517년 신구 2대 분파로 나누어진 기독교는 다시 수다한 교파를 이룩하여...”(『헌법』 개정판, 147)라고 규정하고 있고, 정치 제도로 교황 정치, 감독 정치, 자유 정치, 조합 정치 그리고 장로교 정치로 나누고 있다.

따라서 본 주제에 대한 총회의 결의(제99회)는 유지하되 이 주제에 대하여 제108회기 신학부로 하여금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한 후 본 총회에 보고토록 할 필요가 있다.

5) 반기독교적 사역 단체 관련의 건

- ▶ 교회개혁실천연대, 브릿지임팩트, 교회개혁평신도연합, 성교육상담센터 숨,하나세정치신학연구소, 사단법인 평화나무, 뉴스앤조이. 이상에 언급된 시민단체들은 주로 교회와 목회자를 표적으로 삼고, 정치적으로는 진보적 성향을 보이며, 개혁신학이나 그것을 근간으로 한 보수적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적대적인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우리 교단의 신학적 입장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므로, 본 총회는 이들 단체의 활동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

6) 표준예식서 - 화장예식 및 극단적 죽음에 대한 적절한 예식 제정 헌의의 건

- ▶ 극단적 선택에 의한 죽음과 관련한 장례 예식은 6계명에 대한 해석과 적용의 난제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직면한 자들에 대한 돌봄과 슬픔의 표현을 위한 예식에 집중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극단적 선택에 의한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가족과 동료들을 위한 목회적 돌봄으로서 이 예식은 교단의 지침인 ‘표준예식서’에 준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극단

적 선택에 의한 죽음이라도 장례 예식의 기본 구성은 변화가 없다.

7) 노회 임원 자격질의-이혼한 목사의 노회 임원과 시찰장 지위에 질의의 건

- ▶ 우리 교단은 목사의 이혼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지닌다. 부부 사이 음행의 연고 외에는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현의안의 경우 이혼에 대한 신학적인 입장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혼한 목사가 노회 임원과 시찰장에 입후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 현의안은 신학부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정치부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

8) 회심준비론에 관한 이대위 연구의뢰의 건

- ▶ 신자의 구원의 서정에서 ‘회심’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일어난다. 회심은 그 어떤 방도로도 인간이 창출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물이다. 개혁신의 전통의 회심교리에서 ‘회심준비’는 인간의 방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은혜의 방편을 통해 일하시는 주권적 역사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회심준비론’이라는 용어 자체는 목회 현장에서 용어가 주는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마치 인간이 구원에 개입하고 효력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우려도 있다.

따라서 회심을 성령의 주권적 역사와 하나님 은혜의 선물로 전개하는 회심을 일컬어 ‘회심준비론’이라 할 때는 개혁신의 전통에서 수납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목회 현장에서는 회심준비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교리적 오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하여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청 원 서

수신: 총회장

참조: 서기

제목: 신학부 사업 및 재정청원의 건

1. 신학 관련 현의안은 신학부로 배정원칙을 지켜주시고, 각 상비부 및 위원회 안전과 사업 중 신학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학부의 자문이나 연구의뢰를 거치도록 결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개혁신학을 목회에 적용할 수 있도록 <총회신학부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총회신학정체성선언문을 총회 각 지교회와 각 기관에 보급 활용하기 위해 총회신학정체성선언문 준비위원회를 <총회신학정체성위원회>로 계속 활동하도록 허락해주시기 바랍니다.
4. 총회신학정체성선언문과 해설을 본 교단 헌법 부록에 실을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기 바랍니다.
5. 제107회기 현의안 중 “가톨릭 세례자 입교 교육 및 문답 후 입교 교인으로 공포 실시의 건”의 건은 제99회 총회결의 당시 신학부로 연구토록 한 후에 결의하지 않고 현장 토론만으로 결의한 바 제108회기에 신학부로 하여금 이 현의안을 심층 연구하여 총회에 보고하도록 허락해주시기 바랍니다.
6. 신학부와 총회신학정체성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재정을 청원합니다.
 - 1) 총사업비: 7,000만 원
 - (1) 회의비: 500만 원
 - (2) 총회신학부세미나: 1,000만 원
 - (3) 책자 발간: 1,000만 원
 - (4) 연구비: 1,000만 원
 - (5) 총회신학정체성위원회: 3,500만 원
(회의비: 500만 원, 연구비: 1,000만 원, 책자 및 영상제작: 2,000만 원)

2023년 9월

신 학 부
 부 장 한 종 욱
 서 기 임 종 구



총회신학정체성선언준비위원회 보고

제107회기 총회신학정체성선언준비위원회 사업 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위원장 오정호
서 기 임종구

1. 조 직

- 준비위원장: 오정호
- 총 무: 신현철
- 자문위원: 총회 직영 및 인준 신학교 총장, 증경총회장
- 운영위원: 신학부장 및 신학부 임원
- 초안작성위원장: 김길성
- 초안작성위원: 김석환 김요섭 박윤만 이상원 이풍인 임종구 최재호 황성일 김광열 라영환
박재은 주종훈 채이석
- 외부감수위원: 이상웅(총신대학교) 김근수(칼빈대학교) 이재근(광신대학교) 이병일(대신대학교)
임혜정(국어학자감수) 서기행(특별자문), 김동권(특별자문), 장차남(특별자문)
- 서 기: 임종구
- 회 계: 이풍인

2. 회 의

1) 제1차 회의

☞ 일 시: 2022. 11. 14.(월) 14:00

☞ 장 소: 새로남교회당

☞ 결의사항

- ① 총회신학정체성선언준비위원회 조직을 받기로 하다.

위원장: 오정호 목사, 서기: 임종구 목사, 회계: 이풍인 목사, 총무: 신현철 목사

자문위원: 총회 직영 및 인준 신학교 총장, 증경총회장

운영위원: 신학부장 및 신학부 임원

초안작성위원장: 김길성

초안작성위원: 김석환, 김요섭, 박윤만, 이상원, 임종구, 최재호, 황성일

- ② 초안작성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맡겨 진행하기로 하다.

2) 제2차 회의

☞ 일 시: 2022. 12. 8.(목) 16:00

☞ 장 소: 새로남교회당

☞ 결의사항

- ① 총회신학정체성선언준비위원회 선언문 초안 작성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정하다.

- ② 차기 회의를 2023. 2. 6.(월) 오전 11시에 개포동교회에서 하기로 하다.



3) 제3차 회의

☞ 일 시: 2023. 2. 6.(월) 11:00

☞ 장 소: 개포동교회당

☞ 결의사항

- ① 총회신학정체성선언준비위원회 선언문 초안 작성 위원회 김길성 위원장이 초안에 대한 전체 브리핑을 진행하다.
- ② 각 분과 영역(1항~10항, 서문 추후 보고)에 대한 초안을 각 분과 영역별로 작성한 후 전체회의를 통해 초안 작성을 마무리하기로 하다.
- ③ 각 첫 항은 선언문 '우리는 ~ 믿는다'로 시작하고 나머지 요약은 3~5 정도의 문장으로 전체 형식을 통일하기로 하다.
- ④ 차기 회의를 2023. 2. 28.(화)에 갖기로 하다.

4) 제4차 회의

☞ 일 시: 2023. 4. 14.(금) 14:00

☞ 장 소: 새로남교회당

☞ 결의사항

- ① 선언문과 해설의 문장과 문구의 수정은 초안위원장과 서기에게 맡겨 진행하기로 하다.
- ② 선언문의 감수, 공청회, 출판, 보고서와 청원서의 작성을 위원회 임원회에 맡겨 진행하기로 하다.
- ③ 선언문과 해설을 헌법 부록에 신도록 청원하기로 하다.
- ④ 본 위원회를 차기 회기에도 연장하여 활동하도록 청원하기로 하다.

5) 제5차 회의

☞ 일 시: 2023. 7. 3.(월) 11:30

☞ 장 소: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총회신학정체성선언준비위원회 선언문 외부 감수자(4인)들과 국어 국문과 박사 문법 감수(1인)에게 각각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다.
- ② 총회에 보고할 때 영상을 서기에게 맡겨 제작하기로 하다.
- ③ 총회 시 〈총회신학정체성 선언〉 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하기로 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신학정체성선언문 준비위원회 보고

1. 조직

총회신학정체성선언문준비위원회

- 위원장: 오정호 목사(목사부총회장, 새로남교회)
- 자문위원: 총회장, 총신대학교총장, 칼빈대학교총장, 광신대학교총장, 대신대학교총장
증경총회장: 서기행 목사, 김동권 목사, 장차남 목사
- 서기: 임종구 목사, · 총무: 신현철 목사, · 회계: 이풍인 목사

총회신학부 임원

- 신학부장: 한종욱 목사
- 서 기: 임종구 목사
- 총 무: 박의서 목사
- 회 계: 성경선 목사

초안작성위원

- 위원장: 김길성 교수(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명예교수)
- 서 기: 임종구 목사

연구위원 및 초안작성위원

제106회기

김길성 교수, 이상원 교수, 김광열 교수, 김요섭 교수, 김성태 교수, 이상웅 교수, 이풍인 교수, 임종구 교수

제107회기

총신대학교: 김길성 교수, 김광열 교수, 김요섭 교수, 라영환 교수, 박재은 교수, 이상원 교수, 이풍인 교수, 김요섭 교수, 채이석 교수, 주종훈 교수, 최재호 교수

칼빈대학교: 김석환 교수

광신대학교: 황성일 교수

대신대학교: 임종구 교수, 박윤만 교수

외부감수위원

총신대학교: 이상웅 교수, 칼빈대학교: 김근수 전총장, 광신대학교: 이재근 교수,

대신대학교: 이병일 교수

국어학자감수: 임혜정 박사

특별자문: 서기행 목사, 김동권 목사, 장차남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신학정체성 선언문

서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와 이에 속한 모든 교회는 수많은 도전 앞에서도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리로 믿어 왔으며,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무한한 사랑이 모든 성도와 교회의 존립과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기초이자 능력임을 믿는다.

우리는 역사적 개혁신학이 성경의 명확한 진리를 가장 잘 표현한 신학 체계라고 믿으며, 우리 총회가 표방하는 12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신도개요) 및 대소요리문답(성경 대요리문답, 성경 소요리문답)의 진술이 우리 교회의 공적인 표준 문서로서, 여전히 유효한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고백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세기가 넘도록 우리 교단과 교회들을 진리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날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는 우리의 신학정체성을 선언하려 한다. 이는 종교다원주의적 사조와 초기술사회에 따른 세속화, 성경의 진리에 반하는 다양한 윤리적 도전에 맞서 우리가 견지해 온 신앙고백에 충실한 신학적 입장을 표명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신학정체성 선언의 목적은 보다 선명하고 확고한 신앙의 확인이 필요한 다음 세대의 이해를 돕고, 나아가 우리 교회의 신학적 입장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우리가 지켜 온 역사적 신앙고백을 더 명확하고 쉬운 진술을 통해 재확인하는 데 있다.

제1장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은 우리의 믿음과 행위의 유일한 표준이요, 태어나서 죽기까지 함께 할 우리의 친구요 안내자이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에게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 말씀임을 믿는다.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된 성경은 인간의 구원, 신앙과 생활에 대한 유일하고 절대적인 법칙이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되, 역사 속에서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특성에 따라 역사적·언어적·신학적 해석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

제2장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영원히 삼위로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즉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살아계심을 믿는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인류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믿는 자를 구원하심을 믿는다.

제3장 사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육 통일체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영혼과 육체를 가진 유기적 통일체로 지으셨음을 믿는다. 첫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온 인류는 그 안에서 그와 함께 범죄하였고, 본래 가졌던 의를 잃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인류의 결국이 심판과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은혜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죄의 형벌인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음을 믿는다.

제4장 중보자 그리스도

사나 죽으나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유일 중보자이심을 믿는다. 그리스도는 성육신과 동정녀 탄생, 고난과 순종, 그리고 십자가 죽음을 통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대속사역을 이루셨다. 부활 후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들을 위해 간구하는 유일 중보자이시며, 왕·선지자·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성경대로 다시 오신다.

제5장 구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유일 중보자이심을 믿는다. 그리스도는 성육신과 동정녀 탄생, 고난과 순종, 십자가 죽음을 통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대속사역을 이루셨다. 부활 후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왕·선지자·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성경대로 다시 오심을 믿는다.

제6장 교회

참되고 바른 교회는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성례를 정당하게 시행하며, 권징을 신실하게 집행하여 모든 일을 말씀대로 충실히 수행하는 교회이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며, 성령의 전임을 믿는다. 믿는 자들로 구성된 보편적인 무형 교회는 현세 안에서 제도를 갖춘 유형 교회로 나타난다.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는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성례를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시행하며, 권징을 신실하게 집행하여 교회의 모든 규례와 사역을 말씀대로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제7장 은혜의 수단

믿는 자는 말씀, 성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즐겁고 유쾌하게 교제하는 복된 은혜를 누린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 성례, 기도를 통해 믿는 자에게 은혜 베푸심을 믿는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인데, 세례는 은혜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표지이자 인침이며, 성찬은 떡과 포도즙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영적으로 참여해 은혜를 누리는 수단이다. 기도는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대화하는 은혜의 수단이다.



제8장 신자의 책임

모든 신자는 지역교회에 소속되어 예배와 친교, 봉사에 참여하며 자신이 속한 교회의 치리를 따르고 성례에 참여해야 한다.

신자는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성도 상호 간에 덕을 세우며, 성경을 배우고 전하며 실천하기를 힘쓰고 생활을 통해 거룩함을 드러내야 한다. 또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며 거룩한 교제와 구제, 선한 사업에 시간·재정·재능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제9장 사회적 책임

신자는 믿는 자답게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도덕법을 적극적으로 지키며 살아야 한다.

구원을 받은 신자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 아래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며, 이는 개인생활뿐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구현되어야 한다. 인간 영혼의 구원은 사회봉사보다 우선순위를 가지나, 복음 전도를 위해서는 개인의 구원과 사회봉사의 노력이 함께 수행되어야 한다. 신자들은 사회구조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를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못할 때는 비판하고 대안으로서의 사회구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특별히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도덕규범에 반하는 행위이며, 낙태와 안락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살아 있는 인간의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이므로 금지되어야 한다.

제10장 교회와 국가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으로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우리는 국가가 교회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며, 국가의 공직자는 하나님의 사역자임을 믿는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수호하고 공의를 실현하며 교회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므로, 우리는 국가의 정당한 권위에 순종하고 공직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통치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또한 믿는 자가 국가 기관에서 봉사할 때는 정직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11장 창조세계

믿는 자는 창조세계를 다스리고 보전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 지혜로운 청지기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세계가 인간의 죄와 탐욕으로 인하여 오염되었음을 믿는다. 창조세계의 오염을 극복하고 자원을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우리는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환경을 그 창조 원리에 따라 관리할 책임이 있다.

제12장 최후 심판

심판대 앞에 선 자에게 남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한 복, 그리스도 밖에서의 영원한 벌 이외는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과 심판이 있음을 믿는다. 또한 최후 심판 날에 믿는 자는 영광중에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총회 신학정체성 선언문 해설

제1장 성경

1. 성경의 정의

우리는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 말씀이며 신앙과 생활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법칙임을 믿는다.⁴⁾

2. 성경의 저자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이며,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또한 인간 저자에게 영감을 주는 동시에 환경·경험·교육·언어·문체 등과 같은 인간적·사회적 요소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셨다.⁵⁾ 하나님은 인간 저자가 성경을 기록할 때 인간의 죄악 된 본성이 기록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성령의 감동으로 보호하시면서 그러한 요소들을 사용하게 하셨기 때문에 성경에는 일체의 오류가 없다.

3. 성경의 특성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완전하게 드러내는 온전한 계시이기에 더 보탬 것이나 뺄 것이 없다. 성경에서 예배와 교회의 치리와 신앙생활에 필요한 보다 구체적인 원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전체 성경이 말하는 일반 원칙과 본성의 빛에 근거한 추론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도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한데, 이는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⁶⁾

4. 성경의 해석

성경의 가장 권위 있는 해석자는 성경이기에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신약의 의미는 구약을 통해 충분히 드러나고, 구약의 의미는 신약의 빛 아래에서 읽을 때 분명해진다.⁷⁾ 이는 천지창조와 타락으로 시작하여 이스라엘과의 언약 수립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인류의 메시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기 때문이다.⁸⁾ 성경 저자이신 하나님은 각 권 속에서 자신의 뜻을 점진적으로 더 분명하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의문이 생기면 좀 더 온전하게 말하는 다른 구절을 헤아려 해석해야 한다.⁹⁾ 성경의 원 의미는 하나이며, 그 의미를 찾는 구체적인 해석은 성경이 역사 속에서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특성에 따라 역사·언어·민음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

5. 성경의 번역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다.¹⁰⁾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어

4) 엡 2:20; 딤후 3:16-17; 벧후 1:20-21; 계 22:18-19.

5) 눅 1:2-4; 행 1:1-3; 벧후 3:15-16.

6) 롬 8:7-9; 고전 2:9-10, 12.

7) 고전 10:11; 요 8:38; 막 9:12, 14:21; 히 1:1-2.

8) 요 1:41, 4:25; 골 1:16-20.

9) 사 34:16; 히 1:1-2; 벧후 1:19.

10) 막 5:41, 7:34, 마 27:46; 행 21:37.



사도들로 하여금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게 하신 뜻을 좇으며, 종교개혁자들이 직접 보여준 본을 따라 성경은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이로써 모든 사람이 성경에서 신앙과 생활의 법칙을 찾아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 11)

제2장 하나님

1. 하나님의 속성들

하나님께서서는 지극히 순수한 영이시며 비가시적이시다.¹²⁾ 그는 무한하시고 무오하시며,¹³⁾ 불변하시고 영원하시다.¹⁴⁾ 그는 지극히 공의로우시고 죄를 미워하시지만,¹⁵⁾ 동시에 지극히 자비로우셔서 은혜로우시고 그의 피조물들을 사랑하신다.¹⁶⁾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로운 뜻에 따라¹⁷⁾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전능자로서 모든 일을 행하시므로,¹⁸⁾ 그의 앞에는 만물이 열려 있고 드러나 있다.¹⁹⁾ 그는 자신 안에 모든 생명과 선하심과 복되심을 가지고 계신다.²⁰⁾ 하나님께서는 완해불가하셔서,²¹⁾ 인간이 그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²²⁾ ‘하나님의 자기계시’로 인해²³⁾ 그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을 부분적이거나 정확히 알 수 있다.

2. 삼위로 계심

한 분 하나님²⁴⁾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 계신다.²⁵⁾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한 동일 실체이시며, 각각, 또한 전체로 그러하시다. 신격의 단일성 안에 계신 삼위께서는 한 권능, 한 영광, 한 영원성으로 동등하시다.²⁶⁾ 성부께서는 아무것에도 속하지 않으시고, 나지도 않으시고, 나오지도 않으신다. 성자께서는 영원히 성부에게서 나셨다.²⁷⁾ 성령께서는 영원히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다.²⁸⁾

3. 하나님의 창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태초에 무로부터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든 것을 매우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다.²⁹⁾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

11) 행 2:5-11.

12) 요 4:24; 딤후 1:17.

13) 욥 11:7-9, 26:14.

14) 약 1:17; 말 3:6; 시 90:2; 딤후 1:17.

15) 신 32:4; 시 5:5-6; 히 1:9.

16) 출 22:27, 34:6; 요일 4:8, 16.

17) 엡 1:11.

18) 욥 5:17; 사 1:24; 전 11:5.

19) 시 90:4; 히 4:13; 뱌후 3:10.

20) 민 6:24-27; 시 119:68; 요 1:4, 5:26; 딤후 6:15; 롬 9:5.

21) 시 145:3.

22) 롬 11:33.

23) 롬 16:26; 히 1:1-2.

24) 신 6:4; 고전 8:4, 6; 딤후 1:17; 유 1:25.

25) 마 3:16-17, 28:19; 고후 13:13.

26) 빌 2:6; 행 5:3, 4.

27) 요 1:14, 18.

28) 요 15:26.

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그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셔서,³⁰⁾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을 갖게 하셨다.³¹⁾ 따라서 인간은 원래 이성이 있고 죽지 않을 수 있는 영혼을 가진 채 창조되었고,³²⁾ 하나님의 법을 수행할 능력도 주어졌다.³³⁾ 다만 그들에게는 의지의 자유가 있었으므로 변화에 굴복하거나 죄를 지을 가능성에도 놓여 있었다.³⁴⁾

4.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서는 세상의 가장 큰 것들로부터 가장 작은 것들에 이르기까지³⁵⁾ 모든 피조물과 행위들과 일들을 보전하시고 협력하시며 통치하신다.³⁶⁾ 그는 이 일들을 자신의 지혜롭고 거룩하신 섭리와 자유롭고 변함없는 뜻에 따라 행하신다.³⁷⁾ 그 이유는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와 능력과 공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이다.³⁸⁾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신의 자녀들을 잠시 갖가지 시험 속에서 그들 자신의 마음이 부패한 대로 내버려 두기도 하신다. 이는 자녀들로 하여금 그들 마음의 부패성과 악함을 깨닫고³⁹⁾ 좀 더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의존하며⁴⁰⁾ 늘 깨어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⁴¹⁾ 그렇더라도 이때 죄성은 그 피조물로부터만 나오는 것이요,⁴²⁾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셔서, 죄의 조성자나 승인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⁴³⁾

5.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께서서는 천사, 사람, 또 다른 모든 피조물로부터 모든 영광과 감사와 헌신과 순종을 받기에 합당하시다.⁴⁴⁾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만물 위에 초월적인 주권과 지배권을 가지고 계셔서,⁴⁵⁾ 무엇이든지 자신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만물 위에, 만물을 통해, 또 만물을 위해 행하고 계시기 때문이다.⁴⁶⁾ 하나님께서는 홀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근원이기에⁴⁷⁾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또 그에게로 돌아간다.⁴⁸⁾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가 창조된 목적을 바로 깨달아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든지 죽든지⁴⁹⁾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29) 창 1:1-25; 히 11:3; 골 1:16; 행 17:24.

30) 창 1:26-27.

31) 엡 4:24; 골 3:10; 고후 5:17.

32) 창 2:7; 전 12:7; 눅 23:43; 마 10:28.

33) 롬 2:14-15, 5:12; 전 7:29.

34) 시 103:19; 마 6:30.

35) 마 6:26-30, 10:28-31.

36) 단 4:34-35; 시 135:6; 행 17:25-28; 욥 42:2.

37) 잠 15:3; 시 104:24; 145:17; 대하 16:9.

38) 사 43:21; 시 68:4, 135:3.

39) 대하 32:25-26, 31; 삼하 24:1.

40) 고후 12:7-9; 시 77:1-10, 12; 요 21:15-17.

41) 살전 5:6; 뱀전 5:8; 계 16:15.

42) 잠 29:6; 전 7:29; 고전 3:19.

43) 약 1:13-17; 요일 2:16.

44) 히 2:10; 계 4:11.

45) 창 17:1; 출 3:14, 34:6; 엡 1:11; 계 4:8.

46) 고전 8:6; 골 1:16-17; 히 2:8-10.

47) 출 3:14.

48) 롬 11:36.

49) 빌 1:20.



찬송하며 예배함이 마땅하다.⁵⁰⁾

제3장 사람

1. 인간의 창조

하나님께서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후에 자기 형상대로⁵¹⁾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를 가진 유기적인 통일체로,⁵²⁾ 하나님의 참된 지식과 의, 참된 거룩함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⁵³⁾ 인간은 창조주이자 통치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으며, 그분께 힘을 다하여 책임을 지는 인격적인 존재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셨으며⁵⁴⁾, 그것을 수행할 능력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피조물 사이에 온전하고 완전한 균형과 조화를 이룬 상태로 창조하셨다.

2. 인간의 범죄

인간은 자신의 의지의 자유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⁵⁵⁾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인간은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기준을 거부하고 스스로 최종적 판단자가 되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참된 행복을 누렸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인해 본래 가졌던 의를 잃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었으며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⁵⁶⁾

3. 죄의 결과

죄가 인간의 지성뿐만 아니라 의지도 부패시켜, 인간은 선을 행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존재가 되었다.⁵⁷⁾ 죄에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다. 원죄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결과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타락한 본성과 상태를 말한다.⁵⁸⁾ 원죄에는 죄책과 오염이 있다. 자범죄는 죄책과 오염 가운데 태어난 인간이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말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부패성으로 인하여, 인간은 모든 선을 전적으로 배격하고 역행하며, 선을 행함에 무능해지고,⁵⁹⁾ 모든 악을 전적으로 따르게 되었다.⁶⁰⁾ 죄는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실재로서 마음을 어둡게 하고,⁶¹⁾ 부패시키며,⁶²⁾ 선함을 왜곡시킨다. 전적으로 부패한 본성을 갖고 태어나며 도덕적으로 무능한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이러한 부패한 본성은 중생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들 속에 남아 있다.⁶³⁾ 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되고 소멸해 가지만, 그 부패성 자체와 그로부터 나오는 행위들은 모두 죄악임에 틀림없다.⁶⁴⁾

50) WSC, 제1문의 답.

51) 창 1:26-27.

52) 창 2:7; 전 12:7; 마 10:28; 고후 5:1-9; 빌 1:21-24.

53) 엡 4:21-24; 골 3:10.

54) 롬 2:14-15.

55) 창 2:16-17; 3:6-8.

56) 롬 5:12, 엡 2:1, 3.

57) 시 14:2-3; 롬 3:23.

58) 창 1:27-28, 2:16-17; 행 17:26; 창 3:16-17; 롬 5:12-21; 고전 15:21-22, 45, 49.

59) 롬 3:23, 7:18, 8:7; 요 3:6; 창 8:21.

60) 창 6:5, 8:21; 롬 3:10-12.

61) 롬 1:21.

62) 딤후 6:5.

63) 요일 1:8, 10; 롬 7:14, 17-18, 23; 약 3:2; 잠 20:9; 전 7:20.

4. 사람과 언약

성경은 아담의 타락이 가져온 인류의 절망적 상황을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 즉 언약적 수행의 전망 안에서 제시하고 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소망의 계획은 사람과 맺은 최초 언약인 행위언약에서, 아담의 불순종에 따른 심판과 멸망에서 끝나지 않는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그 자녀들을 은혜 언약의 축복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이 은혜 언약의 축복은 구약 및 신약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동일한 구원의 축복으로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다.⁶⁵⁾ 구약 시대에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약속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으로, 신약 시대에는 그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구원의 축복이다. 이처럼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인류에게 드리워진 절망의 그림자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소망의 축복으로 회복되므로, 하나님 자녀들은 이 땅에서 힘 있게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⁶⁶⁾

제4장 중보자 그리스도

1. 하나님 사랑의 실증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다려 온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시다.⁶⁷⁾ 그는 인류를 향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의 실증으로,⁶⁸⁾ 죄와 부패로 가득한 인류를 그 비참함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고자 이 세상으로 보냄 받으신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독생자이시다.⁶⁹⁾ 그는 원래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그 창조사역에 동참했던 하나님이신데,⁷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약속된 바를 이루시려고 정하신 때에 이 세상에 보냄 받으셨다.⁷¹⁾

2. 성육신과 비하의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천 년 전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실 때,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되⁷²⁾ 죄는 없는 이시다.⁷³⁾ ‘주 예수’로 불리시다가,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려고 온전한 제물이 되사⁷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나 성경에 미리 기록된 대로 그 몸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삼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⁷⁵⁾ 예수의 죽음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며, 그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의로움을 위함이다.⁷⁶⁾ ‘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⁷⁷⁾

64) 롬 7:5, 7-8, 25; 갈 5:17.

65) 창 15:6; 히 11:1-40; 엡 2:1-10.

66) 롬 3:23-24, 5:12-21, 8:9, 16-17; 고전 15:45-49.

67) 요 1:41, 4:25.

68) 요일 4:8-10.

69) 요 1:14, 3:16.

70) 요 1:1-3; 골 1:16; 잠 8:22-31.

71) 히 1:1-2; 갈 4:4.

72) 마 1:18, 20, 23; 눅 1:35; 사 7:14.

73) 요 18:38, 19:4; 히 4:15.

74) 막 10:45; 롬 3:25, 26, 5:8; 히 9:26.

75) 고전 15:4.

76) 롬 4:25.

77) 요 3:15-16; 6:47.



3. 한 인격 두 본성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인격에 특이한 두 본성이 있어,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다.⁷⁸⁾ 그러므로 그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⁷⁹⁾ 신성은 전지하고 어디에나 제한 없이 편재하기 때문에,⁸⁰⁾ 그 취한 바 인성의 관계를 초월해 있지만, 동시에 그 인성과 결합되어 있다. 왜냐하면 온전하고 구분되는 두 본성들, 즉 신성과 인성이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열 없이, 또 분리 없이 함께 신비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⁸¹⁾ 그리스도께서는 신성과 인성의 두 속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인격이 단일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한 본성에 고유한 것이 때로 다른 본성에 의해 불리기도 한다.⁸²⁾

4. 단번에 드리신 희생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친히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⁸³⁾ 우리의 구속주요, 온 세상의 구세주이시다.⁸⁴⁾ 그는 하나님께 단번에 드리신 온전한 순종과 희생제사에 의해,⁸⁵⁾ 아버지의 공의를 충분히 만족시키셨다.⁸⁶⁾ 또 그는 성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을 위해 화목을 이루셨을 뿐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원한 유업까지 준비하셨다.⁸⁷⁾ 이로써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⁸⁸⁾ 그러므로 선지자·제사장·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시요⁸⁹⁾ 교회의 머리와 구주시고,⁹⁰⁾ 만유의 후사시며,⁹¹⁾ 또 장차 세상에 오실 심판주이시다.⁹²⁾

5.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 받고 죽으신 바로 그 동일한 몸으로 하늘에 오르사⁹³⁾ 그의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는데,⁹⁴⁾ 거기에서 그는 지금도 여전히 그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⁹⁵⁾ 이것은 그가 승천하신 후 보내신 성령과⁹⁶⁾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해 세상과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자기 자신을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시기 위해서이다.⁹⁷⁾ 그는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고⁹⁸⁾ 사람들과 천

78) 눅 1:35; 골 2:9; 롬 9:5; 벰전 3:18; 딤후 3:16.

79) 마 16:16; 롬 1:3-4.

80) 마 26:53; 행 1:24; 시 19:4.

81) 눅 1:35; 골 2:9; 롬 9:5; 벰전 3:18; 딤후 3:16.

82) 행 20:28; 요 3:13.

83) 고후 5:14-15; 딤후 2:14.

84) 눅 2:11; 행 5:31; 13:23.

85) 엡 5:2; 히 5:8, 7:27, 9:26.

86) 롬 3:25-26, 5:19; 히 9:14, 16, 10:14; 엡 5:2.

87) 골 1:19-20; 엡 1:11, 14; 요 17:2; 히 9:12, 15.

88) 행 4:12; 요 14:6.

89) 롬 1:3, 4; 딤후 2:5.

90) 엡 1:22; 골 1:18.

91) 골 3:11; 히 1:2.

92) 유 1:15; 계 1:4, 8, 4:8, 19:11-16.

93) 행 1:9-11; 히 9:24.

94) 롬 8:34; 골 3:1; 히 1:3; 벰전 3:22.

95) 롬 8:34.

96) 요 14:16, 15:26.

97) 엡 1:22; 골 1:18.

98) 롬 8:11; 고전 6:14.

사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세상 끝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⁹⁹⁾

제5장 구원

1. 구원의 계획

구원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근거한 창세 전 선택으로부터 시작된다.¹⁰⁰⁾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근거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¹⁰¹⁾ 구원의 그 어떤 시작점도 인간에게서 찾을 수 없다.¹⁰²⁾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기뻐하시는 때와 방식으로, 선택받은 모든 남녀노소에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무조건적인 구원의 선물을 베풀어 주신다.¹⁰³⁾

2. 부르심(소명)

하나님은 선택받은 자들을 복음의 은혜와 구원을 통해 효과적으로 부르신다.¹⁰⁴⁾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와 말씀을 통해 부름 받은 자들의 지·정·의를 깨우고 새롭게 하심으로,¹⁰⁵⁾ 이들은 지극히 자유로운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간다.¹⁰⁶⁾ 부르심의 이유는 인간에게서 찾을 수 없으며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서만 찾을 수 있다.¹⁰⁷⁾

3. 거듭남(중생)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의 본성에 새 생명의 씨앗을 본성에 심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¹⁰⁸⁾ 거듭남은 단회적인 사건이며, 전인격에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사건이다.¹⁰⁹⁾ 거듭남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며,¹¹⁰⁾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¹¹¹⁾

4. 회심(회개와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의 은혜가 임하면 죄인은 마음을 돌이키는 회심을 하게 되어, 참된 회개와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된다.¹¹²⁾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성을 깊이 자각하고, 죄를 향한 혐오가 생기며,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해 가고 싶은 마음을 품게 된다.¹¹³⁾ 참되고 바른 회개는 인간의 감정이나 정서에 호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은혜에 호소한다.¹¹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선물로 받는다.¹¹⁵⁾ 지적으로는 신앙의 대상

99) 유 1:15; 행 1:11, 계 19:11-16.

100) 엡 1:4, 11.

101) 살후 2:13-14; 롬 8:28-30.

102) 엡 1:4-6.

103) 엡 1:4-6; 딤후 1:9; 고전 1:18-31.

104) 롬 8:30.

105) 엡 1:17-18.

106) 행 2:36-41, 16:32-34.

107) 롬 11:29; 살후 2:13-14.

108) 요 3:5; 엡 4:22-24; 딤후 3:5.

109) 요 3:3-8; 골 3:9-10.

110) 겔 11:19-20; 요 3:5.

111) 엡 2:1-6; 고후 5:17.

112) 행 2:38.

113) 단 9:3-19; 행 3:19-21.

114) 고후 7:9-10.



을 바르게 인식하게 되고, 감정적으로는 신앙의 대상을 신뢰하고 사랑하게 되며, 의지적으로는 신앙의 대상을 향해 전인격적으로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¹¹⁶⁾ 믿음은 인간의 자율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다.¹¹⁷⁾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나, 믿음 없는 행함도 바른 행함이 아니다.¹¹⁸⁾

5. 칭의

하나님은 신자의 믿음을 통해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값없이 의롭다 칭하신다.¹¹⁹⁾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 인정하시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의가 주입되거나, 인간의 율법적 행위에 근거하거나, 믿음 자체에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이 전가되었기 때문이다.¹²⁰⁾ 믿음은 칭의의 공로가 아니라 칭의의 도구로서 역할을 한다.¹²¹⁾

6. 자녀 됨과 성화

하나님은 의롭다 칭하신 자들을 그의 자녀로 받아들이신다.¹²²⁾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능력과 특권을 부여받는다.¹²³⁾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리는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 결코 자녀의 신분을 잃지 않으며, 최종적으로는 아버지의 모든 유산과 기업을 물려받게 된다.¹²⁴⁾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역사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받는다.¹²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적으로 거룩해지며,¹²⁶⁾ 은혜 가운데 일평생에 걸쳐 점진적인 성화를 이뤄가게 된다.¹²⁷⁾ 하지만 이 땅에서 완전하게 성화 되는 것은 아니며, 두 번째 성령 세례 및 축복을 받는 것도 아니다.¹²⁸⁾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자라가면서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거룩을 온전하게 이루게 된다.¹²⁹⁾ 하나님 앞에서는 거듭난 자의 행위만 거룩한 선행이며, 거듭나지 않은 자의 행위는 거룩한 선행으로 인정받지 못한다.¹³⁰⁾ 거룩한 선행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영역에 걸쳐 총체적으로 그 영향력이 행사되어야 한다.¹³¹⁾

7. 성도의 견인과 영화

구원의 궁극적 시작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인간의 행위로 구원이 실패되거나 구원으로부터 탈락될 수 없다.¹³²⁾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이들을 영원한 구

115) 롬 10:17.

116) 롬 10:9-15.

117) 엡 2:8-10.

118) 약 2:14-26; 갈 5:6, 22.

119) 롬 3:28; 갈 2:15-3:29.

120) 롬 3:21-4:25, 5:19.

121) 롬 3:22, 28; 엡 2:8.

122) 요 1:12, 엡 1:5.

123) 롬 8:15; 갈 4:4-7.

124) 히 10:10; 요일 3:1-2.

125) 롬 8:11-16.

126) 롬 6:19-21; 고전 1:2; 살후 2:13; 히 10:10.

127) 빌 2:12; 뱌후 3:18.

128) 롬 8:12-13.

129) 살전 5:23.

130) 엡 5:26-27, 요 17:17-19.

131) 롬 13:11-14, 15:16; 요 17:17-19.

132) 요 3:16, 10:28, 29. 엡 1:13-14.

원까지 이끄시고 보호하신다.¹³³⁾ 견인은 인간의 자유의지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불변한 사랑과 선택에 근거한다.¹³⁴⁾ 성도들도 죄에 빠질 수 있고 일시적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 최종적인 구원은 은혜 안에서 확실하게 보장된다.¹³⁵⁾ 부활 때에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과 신체를 죄의 세력과 부패로부터 완전히 해방하시고, 몸의 부활을 통하여 영화롭고 완전한 구속을 이루신다.¹³⁶⁾

제6장 교회

1. 교회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전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이자 거룩한 신부이다.¹³⁷⁾ 그러나 모든 신자들의 어머니인 지상의 교회는 택함을 입은 성도들과 입으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위선자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¹³⁸⁾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통해 자신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시행하며 선교사역을 실천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하신다.¹³⁹⁾ 교회는 말씀을 충실하게 가르치고 성례를 신실하게 시행하며 권징과 규례를 바르게 시행함으로써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정체성을 나타낸다.¹⁴⁰⁾

2. 교회 직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오직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통치되어야 한다.¹⁴¹⁾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방식대로 교회 안에 제도를 세워야 하며, 그 말씀을 순수하고 선명하게 선포하기 위해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역자들을 세우고 모든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¹⁴²⁾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모든 직분자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죽음과 부활, 영광에 이르기까지 모든 은혜를 함께 하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에 따라 그 은혜를 나누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데 힘써야 한다.¹⁴³⁾ 교회의 향존직은 공적 신앙고백을 하고 성경에 제시된 요구에 부응하는¹⁴⁴⁾ 교회의 남자 세례교인 중에서 선택한다. 장로회 정치는 목사, 장로, 집사 등 직분자들이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며, 대의제도에 따라 당회와 노회, 총회를 운영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구현하려 한, 성경의 가르침에 가장 합당한 제도이다.¹⁴⁵⁾

3. 성례

성례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은혜 언약의 표¹⁴⁶⁾로서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확인하고,¹⁴⁷⁾ 세상

133) 롬 8:28-32.

134) 롬 8:35-39; 엡 1:4-6.

135) 요 10:27-28, 벰전 1:13-14.

136) 롬 8:23, 30; 빌3:21; 고전 15:42-54; 요일 3:2.

137) 엡 1:22, 23; 골 1:18; 엡 5:23, 27, 32; 고전 1:2, 12:12, 13; 롬 15:9-12; 창 17:7; 행 2:39.

138) 마 13:24-30, 47, 48. 롬 11:18-22.

139) 마 28:19-20; 엡 4:11-13; 사 59:21.

140) 롬 11:3, 4; 행 9:31; 고전 5:6, 7, 11:23-29; 마 18:15-17; 계 2:3.

141) 엡 2:20; 골 1:18.

142) 요 8:36; 사 9:6, 7; 고전 12:28; 딤후전 5:17.

143) 요 1:3; 엡 3:16-19, 4:15-16; 빌 3:10-12; 살전 5:11, 14; 갈 6:10; 요일 3:16-18.

144) 딤후전 3:1-13, 5:17-20; 딤후 1:5-9.

145) 행 14:23, 15:2-31; 딤후전 3:1-13; 딤후 1:5-9.



과 구분된 하나님의 백성 됨을 나타내며,¹⁴⁸⁾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편이다.¹⁴⁹⁾ 성례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인도하는 사람의 조건이나 의도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 성례를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의존한다.¹⁵⁰⁾ 그리스도에 의해서 제정된 성례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이고¹⁵¹⁾, 임직된 말씀의 사역자만 집례할 수 있다.¹⁵²⁾ 그 가운데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된 신약의 성례로서¹⁵³⁾ 중생,¹⁵⁴⁾ 죄용서,¹⁵⁵⁾ 그리스도와의 연합¹⁵⁶⁾을 제시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확증하고,¹⁵⁷⁾ 교회에 입문하는 방편이다.¹⁵⁸⁾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과 피에 관해 제정한 성례로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을 기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되고 자라고며 연합하는 은혜를 제공하는 방편이다.¹⁵⁹⁾ 성찬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행되어야 하고,¹⁶⁰⁾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말씀¹⁶¹⁾을 선언해야 하며, 떡과 포도즙을 직접 먹고 마시는 참여를 포함해야 한다.¹⁶²⁾ 그리스도께서는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시는 행위를 통해 그들 안에 직접 거하시고, 성찬 참여자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참여한다.¹⁶³⁾

4. 권징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자 주인으로서 교회의 순수성과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 직접 다스리시 되,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 책임 있는 섬김의 의무를 수행하게 하신다.¹⁶⁴⁾ 교회 안에 세워진 직분자들은 말씀과 책벌을 통한 가르침으로 성도들의 죄를 직접 지적하고, 고백을 실천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용서와 화해에 참여하게 한다.¹⁶⁵⁾ 교회의 책벌은 성도들이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어긋난 성도들의 잘못을 바로잡고 개인과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며, 이들이 세상에서 복음의 거룩한 증인이 되게 하는 중요한 실천이다.¹⁶⁶⁾

146) 창 17:9-11; 출 12:3-20, 13:6-9; 눅 22:19-20; 롬 4:11.

147) 고전 10:16, 11:25-26; 갈 3:27.

148) 출 12:48; 히 3:10; 고전 11:27-29.

149) 롬 6:3, 4; 고전 10:14-16.

150) 롬 2:28, 29; 고전 3:7, 6:11; 요 3:5; 행 8:13-23; 요 6:63.

151) 마 28:19; 고전 11:20, 32.

152) 고전 4:1; 히 5:4.

153) 마 28:19.

154) 딤후 3:5.

155) 행 2:38; 막 1:4; 행 22:16.

156) 갈 3:27; 롬 6:3, 4.

157) 롬 4:11; 갈 3:29; 골 2:11, 12.

158) 행 2:41; 10:47.

159) 고전 11:23-26; 마 26:26-30; 눅 22:19-20; 고전 10:16, 17, 21, 12:13.

160) 마 15:9; 고전 11:20-22.

161) 고전 11:23-26.

162) 고전 11:26, 27.

163) 고전 10:16; 요 6:53-58.

164) 마 18:15-17; 요 8:36; 사 9:6, 7; 고전 5:1-2, 12:28; 딤후 5:17.

165) 마 16:19, 18:17, 18; 고후 2:6-8.

166) 딤후 5:20, 1:20; 유 1:23; 고전 5:11; 삼하 12:14.

제7장 은혜의 수단

1. 말씀

하나님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신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¹⁶⁷⁾ 신구약 성경 66권은 믿는 자의 신앙과 생활의 근본 규칙이고 표준이며, 성령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기록된 말씀은 오류가 없는 진리라는 사실을 신자들로 친히 깨닫게 하신다.¹⁶⁸⁾ 성령 하나님은 바르게 선포된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서, 준비된 마음과 부지런한 태도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¹⁶⁹⁾ 삶 속에서 말씀의 열매가 맺히도록 친히 간구하신다.¹⁷⁰⁾

2. 세례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세례를 통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과 그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¹⁷¹⁾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언약을 통해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했음을 세례를 통해 외적으로 공표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음을 교회 공동체적으로 확증하며 인친다.¹⁷²⁾ 구원을 받았기에 세례를 받는 것이지, 세례를 받았기에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¹⁷³⁾ 세례는 일생 중 단 한 번만 받으며, 성령으로 거듭남과 새롭게 됨에 대한 표지이자 보증이다.¹⁷⁴⁾

3. 성찬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찬을 통해¹⁷⁵⁾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된 신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¹⁷⁶⁾ 믿는 자는 떡과 포도즙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영적으로 신비롭게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로 인한 유익을 실제적으로 누린다.¹⁷⁷⁾ 성찬을 베푸는 자, 떡과 포도즙 그 자체, 성찬을 베푸는 행위 자체에는 그 어떤 능력도 없으며,¹⁷⁸⁾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행하심이 성찬의 참된 은혜이며 능력이다.¹⁷⁹⁾

4. 기도

하나님은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할 때 은혜를 베푸신다.¹⁸⁰⁾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존재하는 죄의 골짜기가 너무나도 깊고 넓기 때문에, 신자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공로에 힘입어 기도해야 한다.¹⁸¹⁾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셔서 친히 기도

167) 사 59:21; 행 20:32.

168) 딤후 3:16-4:2.

169) 고전 2:10-12.

170) 롬 8:26; 요 14:26, 16:13-14; 골 1:28.

171) 마 28:18-20; 행 2:38-41.

172) 롬 6:1-14; 고전 10:1-4.

173) 골 2:6-15.

174) 벰전 3:18-22; 요 3:1-21.

175) 마 26:26-27.

176) 고전 11:23-26.

177) 고전 10:16-17, 21; 고전 12:13.

178) 마 15:9.

179) 고전 11:28; 고전 10:16.

180) 히 4:15-16; 마 7:7-11; 요 14:13-14, 16:24.



를 이끄시고 도와주신다.¹⁸²⁾ 믿는 자가 말씀 앞에 서서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의 응답을 겸손히 기다리며 믿음·소망·사랑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다.¹⁸³⁾

제8장 신자의 책임

1. 신자와 예배

모든 신자는 오직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께 예배드려야 하며¹⁸⁴⁾ 어떤 피조물에게도 예배해서는 안 된다.¹⁸⁵⁾ 신자는 지역교회에 소속되어 예배와 친교, 봉사에 참여하며 자신이 속한 교회의 치리에 따르고 성례에 참여해야 한다. 특히 주일은 모든 육신의 일을 정돈하고 성경에 가르친 대로 거룩히 지키되 지교회의 공식 예배에 참여하고 영적 수양서를 읽으며 병자를 방문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불신자를 전도해야 한다.

2. 신자와 기도

신자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하되¹⁸⁶⁾ 교회가 정한 공식 기도회에 참여하여 합심으로 기도하고, 소리 내어 기도할 때는 잘 알려진 언어로 할 것이다.¹⁸⁷⁾ 가정에서도 개인기도의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고, 온 가족이 가정예배로 모여 기도하며 성경을 읽고 찬송해야 한다.¹⁸⁸⁾ 또한 국가 위정자¹⁸⁹⁾와 지교회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¹⁹⁰⁾ 또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¹⁹¹⁾

3. 신자의 의무

신자는 자신이 속한 지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공식 예배회와 기도회에 참여하는 한편, 협력과 거룩한 교제로 교회 발전에 노력하고 사랑과 선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¹⁹²⁾ 또한 선교와 구제를 위하여 은사와 금전을 아끼지 않고 성심 협조하며¹⁹³⁾ 진리를 보수하고 교인된 의무를 성실히 준행해야 한다.

4. 신자의 건덕

신자는 성도 상호 간의 건덕을 위해 거룩한 친교와 교통을 지속해야 하며, 성경을 배우고¹⁹⁴⁾ 전하며 실천하기를 힘쓰고 생활을 통해 거룩함을 드러내야 한다. 신자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며¹⁹⁵⁾ 거룩한 교제와 구제, 선한 사업을 위해 시간·재정·재능을 사용해 하나님의

181) 빌 4:4-7; 롬 8:34; 딤후전 2:5.

182) 롬 8:26-27.

183) 살전 5:17-18; 약 1:5-8, 5:16-18; 딤후전 2:1-4.

184) 요 5:23; 고후 13:14; 마 4:10; 계 5:11-13.

185) 출 3:14, 20:3-5; 신 4:15-29, 12:32; 마 15:9, 4:9, 10; 행 17:23-25; 골 2:20-23.

186) 마 6:9-13; 요 14:13-14, 16:24.

187) 고전 14:14-15.

188) 신 6:4-9.

189) 딤후전 2:1-2; 롬 13:1.

190) 엡 6:19; 빌 1:19.

191) 엡 1:16; 빌 1:4; 행 4:31.

192) 히 10:24-25; 행 4:32.

193) 딤후전 6:18.

194) 마 28:20; 행 2:42.

195) 창 2:21-24; 마 19:4-6; 고전 7:2, 39; 고후 6:14; 창 34:14; 출 34:16; 왕상 11:4; 느 13:25-27.

영광을 드러내어야 한다.

제9장 사회적 책임

1. 사회봉사

복음은 시간적으로는 창세 전부터 재림 이후의 영원과 시간을 관통하고, 공간적으로는 인간의 깊은 내면세계로부터 우주에 이르는 광대한 차원의 하나님의 구원사역이다. 이 장엄한 규모 안에서 그리스도와 의 신비로운 연합이 일어나며, 이 연합 안에서 부르심, 중생, 칭의, 자녀 됨에 의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이 오직 값없이 오직 은혜로 영구히 확정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신자들에게는 성령의 주도 아래 자신의 의지를 조율시킴으로 사회 속에서 성화의 삶을 살라는 준엄한 명령을 따르게 된다.

놀랍도록 영광스러운 구원의 축복은 언제나 한 개인의 속사람 차원에서의 중생으로부터만 시작되므로 개인 영혼의 구원은 논리적으로는 절대적 우선순위를 갖는다. 그러나 한 개인의 속사람 차원에서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사회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나 사회봉사의 원동력이 되며, 사회봉사의 실천은 복음 전도의 효율을 높인다. 이처럼 개인 영혼의 구원과 사회봉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에 있는 만큼, 신자들과 교회는 개인 영혼의 구원과 복음전도는 물론 사회적 참여에도 헌신해야 한다.

2. 성 윤리

인간은 언제나 남자 혹은 여자로 존재한다.¹⁹⁶⁾ 남자와 여자 이외에 다른 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 남자와 여자는 존재에 있어서는 평등하나 기능과 역할에서는 차이가 있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게 문화명령을 받았으며¹⁹⁷⁾ 각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기능과 역할을 통해 함께 이를 수행해야 한다. 아담이 먼저 창조되었고 그 이후에 하와가 창조되었다는 창조론적인 근거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기독교론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가정¹⁹⁸⁾과 교회¹⁹⁹⁾에서 남자는 아내의 머리로서 아내를 지도하며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성경적 질서이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행위²⁰⁰⁾로서, 생물학적·보건의학적 상식에 반할 뿐 아니라 성경의 도덕법도 분명히 금하는 행위다²⁰¹⁾.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²⁰²⁾이기에 배우자의 음행²⁰³⁾과 같이 하나님이 허용하신 정당한 이유가 아닌 한 이혼은 허용될 수 없다.

3. 생명윤리

제6계명은 모든 형태의 살인을 금지하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살인을 금지하는 명령이다. 행동으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뿐만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도 제6계명을 범하는 것이다.²⁰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람의 생명을 고의적으로 죽인 자에

196) 창 1:27.

197) 창 1:28.

198) 고전 11:2, 3; 엡 5:22, 23; 골 3:18; 벧전 3:1; 딤후 2:9이하.

199) 고전 14:34이하; 딤후 2:11이하.

200) 롬 1:26.

201) 레 18:22, 20:13.

202) 창 2:24; 마 19:4-6.

203) 고전 7:12이하; 마 19:9.

204) 마 5:21, 22; 요일 3:15.



대하여 사형을 부과하라는 명령²⁰⁵⁾은 종말의 날까지 적용되는 보편적 명령이다. 영혼을 가진 인간 생명은 임신 혹은 수정 순간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유전자 치료, 배아줄기세포 추출, 낙태, 사후 피임약은 살아 있는 인간의 생명을 자의적으로 파괴하는 행동이기에 허용될 수 없다. 인간의 생명은 심장과 폐의 기능이 정지되는 심폐사의 시점이 되었을 때 종결된다. 따라서 심폐사 이전에 자의적으로 인간 생명을 종결시키는 안락사는 살인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 연명치료의 중단은 효과가 없는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하고 인간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조치이므로 허용될 수 있다.

인공지능은 일반 은총의 선물로서 적절히 활용하면 인류에게 유익을 주지만, 오작동하거나 남용될 경우 인간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위험이 있으므로 도덕적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 인공지능기술을 우상화하여 이를 통해 영생에 이르고자 하는 시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므로 값없이 주어지는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성경의 가르침과 배치된다. 모든 형태의 전쟁을 금지하는 기독교 평화주의는 전쟁의 남용 가능성을 경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인간 악의 불가피한 결과로서의 전쟁의 실재성과 전쟁을 통해서만 바로잡을 수 있는 불의한 현실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국가의 영토와 국민의 생명이 위협당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전쟁이 불가피할 수 있다.

제10장 교회와 국가

1. 국가의 의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각 나라와 민족에게 그 고유한 영역에 대한 통치권을 허락하셨다.²⁰⁶⁾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인 것처럼 국가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공직자는 그분의 사역자들이다.²⁰⁷⁾ 그러므로 믿는 사람이 국가의 공직을 맡아 수행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며,²⁰⁸⁾ 그 직무를 행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정의롭고 공정하게 수행해야 한다.²⁰⁹⁾

2. 국가의 존재 목적

모든 인간은 온전한 권위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한 죄로 인하여 부정과 부패와 수치로 나아갈 수 밖에 없다.²¹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그들의 영혼을 돌보심 같이 국가와 공직자에게 공권력을 주심으로 선을 격려하고 악을 억제하시며, 국민의 정당한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고, 공의를 실현하여 질서를 유지하신다.²¹¹⁾ 이는 궁극적으로 질서와 안전한 가운데 교회가 회집하여 예배하며 건강한 신앙을 장려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선을 도모하시려는 것이다.²¹²⁾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위해 국가가 공권력을 사용하는 것과 침략적 혹은 반국익적 행위에 대해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정당하고 신성한 일이다.²¹³⁾

205) 창 9:5, 6.

206) 창 10:5; 엡 1:20-22; 딤후 6:15-16; 골 1:15-17; 대상 29:11; 신 32:8-9; 시 22:27-28; 잠 22:28.

207) 롬 13:4.

208) 단 2:48-49, 6:1-2; 느 1:1; 예 8:1-2.

209) 신 17:14-20; 단 6:2-4; 레 19:15; 왕상 3:5-10; 잠 31:9, 18:5, 24:23; 대하 1:8-12, 19:5-7; 미 3:1, 11-12.

210) 렘 17:9.

211) 창 9:5-6; 롬 13:2-4; 벧전 2:14-15; 숙 7:9-10.

212) 딤후 2:2; 사 1:10; 눅 3:12-14; 시 148:11-13.

3. 국가에 대한 순종

모든 믿는 자는 국가의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²¹⁴⁾ 비록 국가의 권력 행사가 불완전하거나 국가의 공직자가 다른 종교를 따르는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이는 그 권위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²¹⁵⁾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는 국가의 법을 준수하며,²¹⁶⁾ 국민으로서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고,²¹⁷⁾ 국가와 공직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바르게 통치할 수 있도록 기도하되²¹⁸⁾ 그들의 권력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의 양심을 따라 그리해야 한다.²¹⁹⁾ 그러나 국가나 공직자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부당하게 권리를 행사함으로 신자들의 거룩한 양심을 압제하며 정의를 해친다면 그에 대해서는 결코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해서도 안 된다.²²⁰⁾ 물론 그때에도 신자들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저항하거나 공공의 질서와 안정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준수함으로 기꺼이 견디며, 국가나 공직자들에게서 지지와 호의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²²¹⁾

4. 교회와 국가의 관계

하나님께서서는 국가에 공권력을 부여하셨듯이 교회에 영적 권리를 허락하셨다.²²²⁾ 이 두 권세는 각각 독립적이며 고유한 것이지만, 동시에 모두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봉사한다.²²³⁾ 국가가 교회에 종속되지 않듯 교회도 국가에 종속되지 않으므로 국가는 그 통치권의 한계를 넘어 교회의 고유 권한인 예배, 성례, 권징 또는 신앙의 문제와 관련하여 임의로 개입할 수 없고,²²⁴⁾ 교회도 그 치리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권을 행사할 수 없다.²²⁵⁾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상호 존중함으로 협력할 뿐이다.²²⁶⁾ 다만 국가가 공적 정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또는 교회의 고유한 주권 활동이 다른 영역의 주권들과 충돌되는 경우에 한해 조심스럽게 관여할 수 있는 것처럼,²²⁷⁾ 교회도 국가의 부당한 권력 행사에 대해 교회 대표들의 회의를 열고 이에 대처할 수도 있다.²²⁸⁾

제11장 창조세계

1.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무에서 창조하셨으며, 세계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²²⁹⁾ 창조자와 피조물은 존재론적으로 분명하게 구별된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

213) 민 31:1-21; 수 1:10-15.

214) 롬 13:1; 출 22:28.

215) 롬 13:1; 대하 2:11; 단 4:19-37, 5:17-29.

216) 벰전 2:13.

217) 롬 13:6-7; 마 17:24-27; 22:17-21.

218) 렘 29:7; 벰전 2:13-14; 딤펬전 2:2.

219) 롬 13:5.

220) 시 89:7; 행 4:18-20, 5:29; 단 3:16-18, 6:9-10.

221) 벰전 2:18-20; 눅 18:1-8; 행 24:10, 25:21-25.

222) 롬 13:4; 엡 1:3, 17-23.

223) 마 22:20-21; 막 12:13-17; 눅 20:23-26; 요 18:36.

224) 대하 26:16-21; 삼상 13:8-15.

225) 시 2:1-4.

226) 예 7:11-28; 대하 19:8-10, 32:20; 사 37:4-7.

227) 왕상 2:26-34.

228) 삼하 12:1-15; 왕상 18:16-20.

229) 창 1:1.



다는 성경적 세계관은 지구는 신이라고 주장하는 범신론적 세계관과는 전혀 다르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다.²³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기시에 심히 좋았더라’고 평가하신 것은 우주 만물이 선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주 만물이 선하게 창조되었다는 성경적 세계관은 물질세계는 악하다고 생각하는 그리스철학의 이원론적인 세계관과도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2. 인간의 죄로 인한 타락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세계는 인간의 죄로 인하여 타락하였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은 자연계 전체를 저주 아래 두셨다.²³¹⁾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생태계의 모든 관계가 사랑과 아름다운 조화의 관계²³²⁾에서 경쟁 관계²³³⁾로 변질되었다. 그러나 생태계가 인간의 범 죄로 인하여 타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아래서 보존되고 있다.²³⁴⁾ 생태계의 오염과 위기의 원인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있다. 성경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본다면,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이 탐욕에 빠져 창조 세계의 자원을 무절제하게 남용한 것이 생태계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3. 창조세계 보존의 목표

오늘날 환경의 위기를 극복하고 자원을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우리는 창조세계를 적절히 보존하고 관리해야 한다. 생태계의 위기는 타락한 인간으로부터 초래하였기 때문에, 인간의 경작 활동에 수반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²³⁵⁾ 같은 환경 파괴 및 오염을 제거하여 그 위기를 극복할 일차적인 책임도 인간에게 있다. 생태계의 위기 극복을 통해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와 자원을 안전하게 활용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다.²³⁶⁾

4. 창조세계 보존을 위한 실천적 원리와 사명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환경을 지혜롭고 진실하게 관리해야 한다.²³⁷⁾ 이를 위해 자연을 방치하거나 훼손하는 극단적인 자세를 버리고, 자연을 보호하며 유익하게 관리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의 자원을 개발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주셨으며, 생태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창조적 지혜도 주셨다. 이 땅에서 어떤 자원이 고갈되는 것처럼 보일 때마다 우리에게 다른 유용한 대안을 찾아내는 지혜도 허락하셨다. 따라서 우리는 창조 세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청지기적 영성과 사명을 회복해야 한다.

230) 창 1:31.

231) 창 3:17-19.

232) 창 1:31, 2:23-24.

233) 창 3:16-19.

234) 창 8:21-22.

235) 창 3:18.

236) 창 1:26-28, 2:15.

237) 눅 12:42.

제12장 최후심판

1. 최후심판

우리는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부활과 심판이 일어날 것을 믿는다. 또한 최후 심판의 날에 신자는 영광중에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악인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2. 신자의 죽음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으로, 신자는 죽음 직후 그리스도와의 영광의 교통이 시작된다. 신자의 몸은 무덤에서 부활을 기다리고, 그 영혼은 영광 중에서 하나님의 얼굴의 바라보며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다가, 부활 때에 신령하고 썩지 않는 몸과 영원히 연합되어 천국에서 하나님과 완전하고 충만한 영광으로 영원히 산다. 반면 악인의 영혼은 죽을 때 지옥에 던져지며, 몸은 심판의 날까지 무덤에 있다가 부활의 날에 악인의 몸과 영혼은 수치스러운 중에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고 지옥에 던져져 몸과 영혼이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

3. 심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하셨는데,²³⁸⁾ 그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²³⁹⁾ 재림하시며, 죽은 자와 살아 있는 자에게 즉시 부활과 심판이 진행된다²⁴⁰⁾.

4. 신자의 위로와 소망

신자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천국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준다.²⁴¹⁾ 신자가 이 세상에서 죽을 때 그의 영혼은 즉시 그리스도께로 들어 올려져 은혜의 교통이 시작된다.²⁴²⁾ 신자의 몸은 비록 이 땅에서는 썩어나 부활의 때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영혼과 몸이 연합되어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그러나 그 마지막 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신 것은, 그들이 육체적 안일을 떨쳐 버리고 항상 깨어 주가 오실 날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이다.²⁴³⁾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²⁴⁴⁾

238) 마 25:31-34.

239) 요 5:25, 27; 계 19:11-16.

240) 유 1:6; 벨후 2:4; 고후 5:10; 롬 2:16; 마 12:36-37; 고전 3:13-15.

241) H.C., 57; 58; WCF, 33.

242) 눅 16:23; 롬 8:23; 살전 4:16-17.

243) 막 13:32-37; 눅 12:36-40; 마 24:36, 44-47.

244) 계 22:20; B.C., 37; WCF, 33.